[UCI]I804:24011-200000234000

2007년 2월

석사학위 논문

러시아의 에너지자원 개발 실태와 한·러 간의 협력방안 연구

-석유, 가스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러 시 아 학 과

장 우 정

러시아의 에너지자원 개발 실태와 한·러 간의 협력방안 연구

-석유, 가스 중심으로 -

Russia's Developmental Actual Conditions of Energy Resources and Mutual Cooperation Schemes between Korea & Russia.

-Focusing on Petroleum and Gas-

2007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러 시 아 학 과

장 우 정

러시아의 에너지자원 개발 실태와 한·러 간의 협력방안 연구

-석유, 가스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수 희

이 논문을 러시아학 석사 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0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러 시 아 학 과

장 우 정

장우정의 석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 대학교 교수 문 석 우 (인)

위원 조선 대학교 교수 조 희 무 (인)

위원 조선 대학교 교수 김 수 희 (인)

2006년 11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제2장 러시아 에너지 자원 정책 및 현황

제1절 러시아의 신 에너지 전략

제2절 러시아 에너지 산업 정책

제3절 러시아 자원 개발 현황

제3장 러시아의 대외 협력 실태

제1절 구 소련권과의 에너지 협력 실태

제2절 미국 및 EU와의 에너지 협력 실태

제3절 동북아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실태

제4장 한·러 에너지 협력 방안

제 1절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개발 정책 및 전략

제 2절 대 러시아 에너지 자원 협력 계획

제 3절 이상적인 협력 방안

제 5장 결론

표 목 차

표2-1 푸틴 정부의 에너지 전략 목표 · · ·

표3-4 유럽 주요국별 가스수입의 러시아 의존도 (2004) · · · · · · · · · · · · · · · · · 54
표4-1 해외자원개발 기본 계획 · 63
표4-2 주요 자원 자주 개발률 · 64
표4-3 국가 간 자원 개발 분야 주요 협의 내용 · 65
표4-4 타당성 조사 결과 · 68

ABSTRACT

Russia's Developmental Actual Conditions of Energy Resources and Mutual Cooperation Schemes between Korea & Russia.
-Focusing on Petroleum and Gas-

Jang, Woo - jung
Prof. Kim, Soo - hee
Department of Russia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s the current status of high oil price has continued,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has been highlighted as one of major political tasks to be dealt with by the government for stable securement of future energy resources. Korea is importing 97% of energy resources required because of lacking energy resources and nearly 80% of petroleum from the Middle East. So, the energy induction lines should be diversified and the cost should be reduced through long-standing stable energy supply system and reduction of transportation expense. I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areas or Indonesia from which most of the gas is imported are broken, a big problem will happen in supply of our petroleum and gas. At this time, what is an effective plan to be presented by our country to deal with the problem? That is, what policy should Korea take to secure stable supply of resources? As petroleum and gas are very limited

resources that can be obtained only in particular areas, security of petroleum and gas is important.

Meanwhile, Russia is blessed with energy resources. In particular, Russian government has prepared basic policies on energy development at East Siberia and the Far East area and is preparing basic plans on oil and gas fields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pipes and how to fund them. As the Far East and Siberia, neighbor our country geographically, energ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which are big energy consumers should be reinforced for Win-Win composi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finding an ideal plan of cooperation according to new energy policy of Russia.

The new energy policy presented by Russian government focuses on energy saving and efficiency, and reorganization of energy industry. In particular, a reform of inefficient industrial systems of monopoly undertaking, one of the major problems of Russian energy industry, is a major task of the new energy strategy. Success of Russian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depends on increased efficiency according to reorganization of energy industry. Therefore, Russian government focuses on the role of the energy industry in each economic developmental stage. That is, the core of the new energy strategy is to progress Russian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development of energy industry.

The basic direction of Russian energy policy is to prepare conditions in which potential of energy industry export is maximized for economic recovery and growth. That is, when it introduces an active market economic system to energy industry, new energy technology and overseas capital should be induced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energy business and it should prepare the plan to develop foreign resources and to actively go ahead to international energy markets. For this, Russian government is planning diversified energy markets based on its international bargaining power. It intends to have efficient energy cooperation

composition with CIS countries which are traditional energy resources export areas within existing energy cooperation frame and to expand it toward European and Asian countries.

And Korea, Japan and China have many common things in policies on energy security and recognize importance of energy security. They are pursuing diversification of supply sources to lower their dependencies on the Middle East. However, compared with Japan which has pursued various methods of participation for 30 years to secure crude oil and natural gas from the Far East and East Siberia, and China which is actively considering actual participation, the efforts of our country are insufficient.

Therefore, our country should prepare our national energy security strategy and joint information network to provide personal data based on persons concerned of residential countries or success examples for our private business for induction of interest in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and investment. And we should specifically analyse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Far East and East Siberia of Russian government, change in investment environment relating to resources development and Russian long-term energy development plan, and prepare a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road map for further development of energy resources.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최근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미래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자국의 에너지가 부족하여 에너지 자원의 97%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특히 석유의 중동지역 의존도가 80%에 육박[1]하고 있어 에너지 도입선의 다변화와 에너지의 장기 안정적 공급, 그리고 운송비 절감을 통한 에너지 도입 비용 절감이 절실한 상황이다.

에너지는 국가 경제의 핵심 자원이여서 대부분의 산업 국가들은 에너지 자원 개발과 안정된 수급을 국가 안보적 차원의 문제로 다루며, 이를 위해 부단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석유부문에 있어서 세계 6위의 소비국이며, 수입 규모로는 세계 4위[2]인 한국의 경우 이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 또한, 가스부문에 있어서도 1980년 2차 석유위기가 도래하며 국내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국내 천연가스 도입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청정에너지에 대한 선호가 확산되며, 1998년 10,421천톤에 이르렀다. 1999년 발표된 산업자원부의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국내 천연가스 도입물량은 꾸준한 수요증가가 이루어져, 2000년 13,130천톤에서 2005년 17,260천톤, 2010년 20,814천톤[3]에 달할 것이라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80-90년대 가스 도입 계약시 원유가격의 급등을 예상하지 못한 채 가스 도입가격을 원유가격과 연동시켜 계약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치르고 LNG(액화천연가스)를 구입하고 있다. 게

1) http://www.mofat.go.kr/mofat/ICSFiles/afieldfile/2005/11/17/whitepaper_energy.hwp
2) *Ibid.*
3) 김대형, "시베리아의 천연가스 자원과 러시아의 동북아지역 천연가스 수출 전략", 『한국시베리아학보』, 제2집, 서울, 한국시베리아학회, 2000, p.197

다가 한국은 최근에도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실패와 함께 독립적인 소규모 소매업자들이 몰락하고 4대 대기업만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악화 등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지금[4], 에너지도입이 일개 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될 경우 에너지보유국의 독점적 지배 하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며 에너지 안보[5]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도입선 다변화의 확대를 위하여 향후 에너지 부국과의 장기도입계약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공급국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원의 확보도 도모해야 한다.

한편, 러시아는 최근 석유생산량이 일산 약 900만 배럴을 넘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고, 천연가스 생산도 부동의 1위를 점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자원 부존 국가[6]이다. 현재 러시아 에너지산업은 러시아의 전체 GDP의 약 25%, 수출의 50%, 재정수입의 33%를 차지하고 있다.[7]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개발 및 수급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활용방안을 담은 "에너지 전략 2020"을 채택하여 시행 중이며, 이 "에너지 전략 2020"은 러시아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과 방향 및 추진과제를 담은 것으로 2003년 8월에 정부명령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전략아래 구소련시대부터 전개해왔던 우랄산맥의 서쪽지역에 해당하는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자원개발에 보다 박차를 가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다음으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까스피해 유전과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최근에는 극동 ·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개발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접해있어 한국이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있어 수송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파이프라인을 건설 할 경우 해양으로 들여오는 원유가 보다 훨씬 안전하게 들어옴으로써 에너지의 장기 안정적 공

---

4) http://blog.naver.com/kimseye3?Redirect=Log&logNo=130010840442
5) 에너지 안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usea.org.*US Energy Association 2002* 참조
6) 김덕주,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개발 동향과 우리의 대응 : 극동 시베리아지역을 중심으로", 『2006 봄 주요국제문제분석』,서울, 외교안보연구소, 2006, p.191
7) http://eoilgas.co.kr/

급에 매우 유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처음에 파이프라인을 건설 할 때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그 파이프라인이 연결됨으로써 후에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 받을 수 있다면 결코 건설 할 때의 비용은 많다고 할 수 없다. 원유가 우리나라에 저렴하게 수입된다면, 한국의 수출상품의 상품가격은 하락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상품가격의 하락세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대소비국인 한국과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강화는 두 나라 모두 상호이익이 되는 WIN-WIN 구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신에너지 정책을 내세운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협력 방안으로 정하며, 대러시아의 신에너지 정책에 알맞은 한국의 협력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 에너지 공급원의 다원화를 통해 미래의 에너지 위기에서 현명하게 벗어나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논의 대상이 되는 자원을 석유와 가스로 한정한 이유는, 이 논문은 자원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안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지로 진행된다. 에너지자원이 국가안보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에서 자국 내 해결이 불가능한 자원인 석유와 가스는 해외공급에 의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충분히 국가 안보적 차원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논의 대상을 석유와 가스로 한정하였다.

또한 에너지 공급지역을 러시아 극동 · 시베리아 지역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우랄산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은 자원의 보고이자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자연환경, 낮은 인구밀도, 인프라 부족 등으로 개발이 저조한 상황이다. 뿌찐 대통령은 집권 2기의 주요 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동북아 진출을 통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극동 ·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러시아 정부는 2003년 극동 · 시베리아지역 에너지 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극동 및 자바이깔 경제사회발전 연방프로그램 2010”등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에너지 수송망 구축을 위한 세부 개발 계획을 입안하고 있다. 현재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극동 · 시베리아 지역은 지리적으로도 이점이 있으며, 미개발 매장지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어 한국과의 에너지 공급지로 충분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러시아와 한국의 에너지 협력 관계와 협력 방안의 내용은 문화적 접근법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론을 원용한다. 러시아는 다른 민족국가와 협력관계를 갖는데 있어서 서방사고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석유와 가스의 공급 방법에 있어서도 자국의 이해타산과 맞지 않을 시 정상적인 국제가격에 거래가 되지만, 친 러시아 정책을 구사하는 나라에는 낮은 공

급가를 제시하는 수출 이중가격을 채택해왔다. 이러한 예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러시아는 보통의 서방사고와는 다른, 법과 제도를 초월하여 관계를 맺는 문화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와 원만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최상의 에너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러시아는 1991년 공산주의가 붕괴하면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새롭게 정책을 변화시켰다. 이와 같은 혼란스런 상황에 러시아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였고, 그 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서방과의 협력이 필수적 이였다. 이 때, 러시아는 신자유적 세계관을 하나의 인식도구로 받아 들였다. 복합적인 상호의존을 중심 개념으로 하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 세계관 이론은, 다국적 기업 및 초국가적 은행과 같은 비 국가적 행위자들이 그들 자신의 이익 추구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에서 서로에게 보다 민감한 정부정책을 만들고 있는, 전달벨트로써의 행동을 중요시하고 있다.[8] 즉, 국가 간의 교류가 형성, 유지, 확대 및 지속되기 위해서는 신뢰의 바탕위에서 인력 및 재정적 지원, 정부적 신용과 같은 노력 및 제도적 틀 속에서, 세계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세계화 속에서[9],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는 국가적 개념을 떠나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문화적 접근방법으로 서방사고로는 납득되지 못하는 관계를 이용한 최상의 협력 방법을 구하고,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인용하여 러시아 정책의 기본에 내재되어 있는 외교방법을 찾아내어 가장 효과적이고 원만한 외교 협력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러시아와 한국의 에너지 현황은 산업자원부, 국가정보원, 에너지경재연구소, 해외경제연구소,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BP(British Petroleum), EIA(Energy Information

---

8) Kegley, Chafles W. & Wittkopf, Eugene R. (ed.), *World Politics: Trend and Transformation,* Macmillan Press LTD, 2001, pp. 41-42, 김수희, 『세계화와 우리의 진로』, 광주,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6. p. 49. 재인용.

9) A. T. Kearney. "Measuring Globalization: Economic Reversals, Forward Momentum," *Foreign Policy,* March-April 2004. 김수희,『세계화와 우리의 진로』, 광주,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6. p.18. 재인용.

Administration) 등의 국내·외의 석유 기업과 기구들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고, 정상외교는 각국의 외교부 자료를 기초 분석하였다. 또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의 ‘국가정보’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파악했다. 여기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정상 외교나 실무급 회담이 있었던 시기의 언론 보도와 브리핑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에너지 외교 정책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1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을 다룬다. 2장은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 정책과 신에너지 전략을 통한 현재의 석유, 가스 에너지 자원 전략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에너지 보유 상황과 개발 현황을 살펴본다. 이어서 3장에서는 러시아의 에너지 대외 협력 실태들을 알아본다. 구 소비에트 블록권 지역과의 에너지 협력 실태와 EU 및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실태 및 동북아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실태들을 통해 4장에서는 우리의 이상적인 협력 방안을 알아본다. 끝으로 5장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러시아 에너지 자원 개발 정책 및 전략

제1절. 러시아 신에너지 전략

러시아연방 에너지부는 정부기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국내 에너지 기업 및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러시아의 장기적인 에너지 기본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전략 2020'을 작성하여 2000년 4월에 연방정부에 제출하였으며, 2000년 12월에 정식 승인 되었다. 이 전략안에서는 경제·에너지 시스템정책, 지역정책, 과학정책, 환경보호 정책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각 에너지 부문의 2020년까지의 생산 전망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투자액 등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GDP 성장률이 연평균 5~6%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2020년에는 러시아의 경제규모가 현재의 3배 정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0]

뿌찐 정부의 신에너지 전략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고, 에너지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현재 러시아 에너지 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전력이나 가스에서의 독점기업의 비효율적인 산업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신 에너지 전략의 주요과제이다. 러시아 경제개발전략의 성공여부는 에너지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효율성 증가에 좌우된다. 따라서 러시아정부는 각 경제발전단계에서 에너지 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11] 이 전략의 핵심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그 단계별 목표는 <표2-1>과 같다.

1.지하자원의 전략적 이용을 통한 국민생활수준 향상

2.에너지 시장에서의 독점분야 구조개편 완성

3.에너지 생산자의 자체자금조달 가능수준에서 국내 에너지가격 제도 개편

---

10) www.easternblocenergy.com

11) *Ibid.*

<표2-1> 뿌찐 정부의 에너지 전략 목표

전략 단계	단계별 목표	에너지자원 수출수익목표	에너지원 단위 (에너지/GDP)
1단계 (2001-2003)	경제전반에 걸친 철저한 구조조정을 실시, 지속적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을 강화	-2010년까지 GDP의 12-15%	-2020년까지 2000년 수준보다 절반이상으로 감소 -에너지산업 투자액 GDP의 5.5-6%
2단계 (2004-2010)	조속한 산업구조발전을 통한 경제개발, 생산효율성과 경쟁력 증대		
3단계 (2011-2020)	높은 경제성장속도 지속, post industrial society 구축	-2020년까지 GDP의 7-8%	

출처 : 최원보, "러시아 석유 및 가스 산업의 현황과 전망," 『월간 카프카즈 저널』,제6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 외국학 종합 연구 센터 러시아 연구소, 2004.

이 전략의 주된 목적은 에너지부문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에너지 발전을 위한 우선과제를 설정하며, 국가 에너지 정책 수단 및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가운데, 연료·에너지 산업의 질적 발전과 국제시장에서의 러시아 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에너지 전략의 주요과제는 <표 2-2> 와 같다.

<표 2-2> '2020년까지의 러시아 신에너지 전략'의 4대 주요 과제

경제·에너지 시스템 정책	대형 금융·산업 그룹과 소규모 민간기업이 공존하는 경제조직의 적절한 구성 국유재산 관리 및 자연독점기업 규제를 위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 원자력 발전 및 석탄부문의 신속한 발전,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운송·산업 부문의 전기화(電氣化) 확대 열 공급 시스템의 집중화와 분산화의 적절한 구성 가계부문의 개혁, 연료이용의 효율화를 통해 50% 에너지 절약 실현

지역 정책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에너지 공급자와 소비자간 상호 협정 에너지 절약에 관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의무와 권리, 책임사항을 명확히 함 각 지방의 에너지 자원 및 다른 지방에서 얻은 에너지 자원의 합리적 이용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치·경제적 책임을 법률로 명시 지방 정부의 에너지 절약, 에너지 생산, 지방세 관련 법률 제정
과학 정책	에너지 절약 기술 현대적인 탐사 기술 군사목적 플랜트로부터 전용된 러시아제 설비를 우선 사용
환경보호 정책	에너지 생산 및 이용시 생기는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할 전국 규모의 감시시스템 구축 케이싱 가스 및 탄전에서 생산되는 메탄의 이용 확대. 2020년 까지 연간 60억~80억 m^3 이용을 목표

자료 : *Eastern Bloc Energy.* July 2000. www.easternblocenergy.com

위에 언급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첫째, 에너지 수송부분 즉, 송유관이나 가스관에 대한 국가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에너지 자원 개발 분야에 대한 국가통제권도 강화하는 추세이다. 둘째, 2006-2007년경 WTO 가입에 대비하고 에너지 관련 국영기업들의 재원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에너지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셋째, 석유산업에 대한 과세인상을 통해 확보된 안정 기금으로 고유가 시대 이후에 대비하는 것인데, 안정 기금을 통해 확보된 잉여자금을 대외채무 조기상환, 첨단산업 투자 등에 사용한다. 또한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합리적인 에너지 시장의 구축 및 시장 참여자간 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와 국가 기관 간에도 동등한 경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 주체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 경제관계의 조정자로서 시장 인프라 구축을 휘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연료・에너지 체계에 있어서 국가조정의 주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1.합리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실시(에너지 요율・세금・관세・반독점 규제 및 제도 개혁 분야 포함)

2.국가자산 경영의 효율성 증대

3.에너지 절약을 촉진시키고 에너지 분야의 효율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 규정, 국가 기준 및 법령 도입

4.투자・혁신・에너지 절약 분야에서 경제 주체들의 전략구상 장려 및 지원

신에너지 전략상 주요 에너지 생산전망 및 신에너지 전략상 에너지부문 투자 필요 액 전망은 <표2-3>,<표2-4>와 같고, 앞으로 이 문서에 언급되어 있는 과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수정・보안될 것으로 보인다.

<표2-3> 신에너지 전략상 주요 에너지 생산전망

원 유	다른 연료의 국제 가격, 러시아의 세제, 탐사・생산기술의 발전, 매장 원유의 품질 등에 따라 좌우될 것임. 원유생산은 2010년 연간 3억 3,500만 톤, 2020년 연간 3억 5,000만 톤으로 증가 전망 서시베리아 지역은 생산이 1999년 2억 1,600만 톤(러시아 전체의 70%)에서 2020년 1억 9,200만~2억 300만 톤(러시아 전체의 55~58%)까지 감소하나, 주요 생산지로서의 지위는 유지할 것임 2010년 이후, 찌만・페초라, 까스피해, 북극해 대륙봉, 동 시베리아 에서 원유 생산개시 전망. 2020년까지 극동・동 시베리아의 원유생산은 5,200만~7,000만 톤(러시아 전체의 15~20%)에 달할 것으로 전망
천연가스	천연가스 생산량은 1999년 5,897억 ㎥에서 2010년 7,000억 ㎥, 2020년 7,500억 ㎥까지 증가 전망
석 탄	석탄생산량은 1999년 2억 4,250만 톤에서 2010년 3억 2,000만 톤, 2020년 4억 톤으로 증가 전망
전 력	발전량은 2000년 840TWh, 2010년 1,125TWh,2020년 1,585TWh 전망. 이중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은 2000년 563TWh에서 2010년 776TWh, 2020년 1,125TWh 전망

자료 : *Eastern Bloc Energy*. July 2000. www.easternblocenergy.com

<표2-4> 신에너지 전략상 에너지부문 투자 필요 액 전망

단위:10억 달러

	1999	2000	2001~05	2006~10	2011~15	2001~15
원 유 생 산	1.8	2.2	15.0	27.0	40.0	82.0
석 유 정 유	0.2	0.2	1.5	2.5	2.8	6.8
원유·석유제품 운송	0.2	0.6	3.5	4.0	5.0	12.5
천 연 가 스	2.5	4.4	17.0	21.5	29.0	67.5
석 탄	0.2	0.2	1.1	2.1	2.6	5.8
전 력	1.2	1.1	6.6	11.7	21.9	40.2
·화력, 수력	1.1	1.0	4.7	8.8	13.5	27.0
·원 자 력	0.1	0.1	1.9	2.9	8.4	13.2
합 계	6.1	8.7	44.7	68.8	101.3	214.8

자료 : *Eastern Bloc Energy*. July 2000. www.easternblocenergy.com

또한 극동 · 동시베리아 지역의 안정적인 가스공급과 해외수출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지역 내 가스전들을 통합 개발하려는 계획 하에 특정 가스전을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용으로 지정하지 않고 내수 공급과 수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2002년 7월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가스의 생산 · 수송 및 공급의 통합시스템 작성계획' 을 발표하였다. <가즈쁘롬>을 중심으로 작성한 UGSS 계획의 주요 추진 목표는 2020년까지 러시아 장기 에너지전략에 따라 러시아 전체 가스공급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이며, 극동 · 시베리아 지역 가스 생산을 최대화하고, 지역경제 성장과 연계된 가스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아시아 ·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가스수요 증가에 대처하여 동북아 가스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극동지역 에너지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가스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부처 · 연구소 · 기업들 간에 실무그룹을 구성, UGSS 최종안을 마련 중이나 현재까지 수차례 예정시한을 넘기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UGSS의 기본안은 <표 2-5>와 같다.

<표 2-5> UGSS 기본안

지역	예상투자비	계획안
East Option	자원개발비 75억불, 파이프라인 간접투자비 86억불	꼬빅따 가스는 러시아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에 공급하고, 사할린 가스를 한국과 중국에 공급하는 안
Center Option	자원개발비 73억불, 파이프라인 간접 투자비 126억불	꼬빅따 가스는 러시아 서부지역과 동부 지역에 공급하고, 사할린 가스를 한국에, 야꾸츠끄 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안
West Option	자원개발비 83억불, 파이프라인 간접투자비 117억불	꼬빅따와 야꾸츠끄 가스를 연결, 러시아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에 공급하고 한국과 중국에도 수출하며, 사할린 가스는 나호뜨까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안

자료 : 국가정보원,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자원개발 진출 자료집』, 서울, 국가정보원, 2005.p.55

제2절. 러시아 에너지 산업 정책

뿌찐 정부는 2005년 중 그 동안 준비해 온 '경제특구법'을 마무리 지었음은 물론 석유 · 가스 · 전력 등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권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실제로 뿌찐 정부는 2005년 국영기업 가즈쁘롬을 이용하여 러시아의 제 5위 석유회사 시브네프찌를 인수하였다.[12] 1999년부터 GDP 성장 경제를 지속시켜 오면서 지난 6년간 1.5배의 고도성장을 유지해 온 러시아는 2005년에도 비교적 양호한 인플레이션 및 안정된 환율을 유지하였다. 또한 아래의 표와 같이 약6.4% 내외의 GDP 성장률을 실현하였으며, 고유가에 힘입어 외환 보유고도 12월 기준 1,000억불에 달하였다.

<표2-6> <05년 러시아 GDP 규모 및 성장률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GDP 성장률	4.7	7.3	7.2	6.4
GDP (억 루블) (억 달러) 연말 루블/달러 환율	108,305 3,407 31.78	132,432 4,497 29.45	170,084 6,129 27.75	216,650 7,528 28.78
1인당 GDP (달러)	2,370	3,130	4,280	5,270

자료출처: http://www.mofat.go.kr/mofat/mk_a004/mk_b023/mk_c038/1198273_568.html

뿌찐은 2010년까지 2003년 기준 GDP를 배증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편으로는 외국인의 투자 유치 확대, 세제 개혁, 금융 산업 육성 및 제도화 등을 위한 개혁 조치들을 취해왔다. 또한, 국가 재정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 및 주식 지분 확대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다.[13]따라서 러시아는 2006년 1월 주요 전략자원에 대한 국가소

12) 최용권, 『러시아 석유·가스 개발현황과 전망』,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04. p. 24.
13) 최원보, "러시아 석유 및 가스 산업의 현황과 전망," 『월간 카프카즈 저널』,제6호. 서울, 한국

유권을 규정하고 외국인의 개발참여[14] 지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지하자원법’을 개정하였다. 그간 러시아 정부는 효과적인 자원이용과 채굴 확대에 따른 환경오염예방에 목표를 두고 1992년 채택된 ‘지하자원법’에 근거하여 지하자원 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동 법률은 그간 수차례 수정・보완작업을 거쳤으며, 최근 러시아 정부는 국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기존 모호했던 정부와 개발 기업 간 관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2005년도 6월에 하원에 제출하여 하원 심의 등 법안 처리 절차를 거쳐 2006년 1월에 발효 되었다. ‘신 지하자원법’ 개정안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15]

①지하자원의 소유권과 관련 기존 연방・지방간 권한배분이 불분명했던 것을 연방정부로 귀속, ②지하자원 개발허가 시스템을 정비하여 자원개발자의 안정성 보장, ③경매절차 조건 및 경매취소와 관련한 구체 내용을 명시, ④지질탐사를 통해 유용 광물 매장지를 발견한 사업자에게 자원개발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⑤자원개발권 조기 종료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한편,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은 자원의 보고이자 대륙 간 교량 역할 등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부족과 열악한 자연환경, 낮은 인구밀도 등으로 경제발전이 저조한 실정이다. 뿌찐 대통령하의 러시아에서는 극동・시베리아 균형개발 및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동북아 진출을 통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동지역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러시아 주요 인사들의 발언사례 <표2-7>을 살펴보면 동지역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어대학 외국학 종합 연구 센터 러시아 연구소, 2004.p.24.

14) 당초 외국인참여 지분을 49%로 제한할 계획이었으나 50%로 다소 완화시킴.

15) 신지하자원법에 대한 내용은 김선영, “러시아 지하자원법 개정 이후 투자 감소 우려,”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5.03.31 참조.

<표2-7> 극동 · 시베리아 관련 최근 러시아 주요인사 발언사례

구 분	발 언 내 용
<뿌찐>대통령	극동 · 시베리아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계획 (05.4) - 자원개발 등을 통한 극동 · 시베리아 지역의 발전 필요성 강조(00.11)
<뿔리꼽스끼> 극동 대통령대표	극동지역은 전략자원이 풍부하나 인프라 미비로 인해 여타지역에 비해 사회경제발전이 저조(05.9)
<라브로프> 외무장관	세계경제 및 세계정치에서 아태지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 대외정책에서 극동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05.6)
<그레프> 경제 개발통상장관	극동지역 사회경제발전을 위해 2006년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6배 증액, 향후에도 계속 늘려나갈 방침(05.9) -극동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2005.9 <뚜르뜨네프>천연 자원 · <레비찐> 교통장관 등과 함께 극동방문

자료 : 국가정보원,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자원개발 진출 자료집』, 서울, 국가정보원, 2005.p.32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극동 · 시베리아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2002년 3월 '극동 및 자바이깔 경제사회발전 연방프로그램2010' 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시행중이다. 극동· 자바이깔 발전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는 <표 2-8>과 같다.

<표 2-8> 극동 · 자바이깔 발전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

단 계	주요 추진 목표
1단계 (2002~04년)	사회경제 · 제도적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 지역 경제발전 조치들은 관련 연방정부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실행 매년 지방정부의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결정

2단계 (2005~10년)	적정 수준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지역 경제의 구조조정 및 현대화
3단계 (2011~20년)	지역간 경제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자료 : 국가정보원,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자원개발 진출 자료집』, 서울, 국가정보원, 2005. p.33

이 프로그램은 천연자원 기지로서의 잠재력을 활용한 국내수요 충족과 자원의 수출을 명시하는 등 지역 경제발전의 주요수단으로서 천연자원 개발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에너지 정책을 실시하면서, 국가는 연료·에너지자원 소유주로서의 권리를 활용할 것이며, 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 소유권, 특히 주요 에너지 산업부문 운송 인프라 및 위험 시설물[16]에 대한 국가 자산 구조 개편 및 주식회사 설립[17]과 국가 통제를 벗어난 자산의 사유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핵심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에너지 개발정책은 앞으로의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러시아의 석유·가스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의 석유부문은 연방정부 재정의 주요 원천이다. 1998년 여름 금융위기 이후 루블화의 평가절하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회사들의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재정이 확대되면서 러시아 경제는 호조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석유산업의 체질 강화나 석유부문에 대한 세제 정책은 러시아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거 옐찐 정부시절에는 세금의 종류도 많았고, 세제 체계 또한 상당히 복잡하였다. 석유관련 세법도 수시로 개정되었고 세법 개정 시마다 새로운 세금이 추가되면서, 과도한 세금[18]으로 석유기업들의 체납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그 다음

16) 여기에서 위험시설물이란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 등을 말함.
17) 러시아에는 국가 소유가 아닌 집단소유의 자산이 있고, 이러한 집단 소유자산의 경영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사유화를 실시하는 것을 국가 통제를 벗어난 자산의 사유화라 함.

으로 취임한 뿌찐 정부는 세금 체납기업을 일소하기 위하여 석유기업들이 지불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하였다. 한편, 최근 높은 국제유가를 바탕으로 민간 석유부문의 초과이익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하자원 채굴세 인상과 석유수출세 인상 등으로 석유분야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한편, 비에너지부문에 대한 세금인하를 통해 에너지부문의 의존도를 낮추는 등 산업구조 다변화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19]

<표 2-9> 러시아 석유 기업의 세금 종류별 비중

단위: %

	2001	2002	2003
부가가치세	9.6	9.0	8.2
이윤세	14.2	17.4	15.8
도로이용세	1.9	2.1	-
석유제품 물품세	9.6	10.2	11.3
석유 수출세	16.5	13.9	15.7
석유제품 수출세	3.4	2.7	2.5
석유 물품세	4.2	-	-
광물·원료기반 재생공제세	11.3	-	-
로열티	16.9	-	-
지하자원채굴세	-	34.0	37.3
기 타	11.4	12	9.1
합 계	100	100	100

자료 : *Oil & Gas Eurasia*. www.eurasiapress.com

2001년 8월, 뿌찐 대통령은 세제 개정법 안에 서명함으로써 2002년 1월 1일부터 '세제 수정법'이 시행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윤세율이 종전 35%에서 24%로 인하되었고, 이 24%의 세율 배분을 명확히 하였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그 중 5%가 중앙정부 예산, 17%가 연방구성주체 예산, 2%가 지방자치제 예산으로 각각 분배[20]되고 있다.[21] 2002년 1월부터 종량세

18) 1998년 6월 당시, 러시아 국내 원유 도매가격은 톤당 69.1달러로 세법상 세금 및 기타 부과금의 합계는 도매가격의 98%에 해당하는 67.7달러/톤 이었음.
19) 최용권, 『러시아 석유·가스 개발현황과 전망 』,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04, p.30.
20) 2003년 중 이윤세 분배 비율은 각각 6%, 16%, 2% 였음.
21) *Ibid*, p.31.

방식의 지하자원 채굴세가 도입된 결과, 기업내부 가격[22]을 이용한 지하자원 채굴세의 절세가 힘들어지고, 2002년 이후에는 오로지 이윤세를 대상으로 한 절세가 행해지게 되었다. 이로써 러시아 석유회사의 납세액에서 차지하는 이윤세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02년 1월부터 종전 석유 물품세, 로열티(광구 사용료), 광물·원료 기반 재생 공제세 등 3개의 세금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 마련된 지하자원 채굴세로 일원화 하였다. 지하자원 채굴세 세율은 폐지된 3개 세금의 실질적 세율의 누계와 같은 16.5%로 설정되었으나, 한시적 조치로서 2004년 말까지는 톤당 340루블을 기본 세액[23]으로 하는 종량세 방식이 채용되었다. 종량세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석유기업들이 거래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잡아 절세하는 방법을 채용할 수 없게 되어, 각 석유회사의 세금 부담은 증가[24]하였다.

<표 2-10> 러시아의 석유 관련 세제 개정 요약

	2001년 12월 31일까지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윤세 (과세대상 : 순이익)	35%	24% (연방예산 5%, 연방주체예산 17%, 지방자치제 예산 2%로 분배)
로열티와 지질세 (과세대상 : 국내 원유가격)	16-26% (로열티와 지질세의 합계세율로 세율은	폐지

22) 대형석유회사들은 산하 석유생산기업에서 생산된 석유를 국내 자유경제지역 등 특혜세제 적용지역에 등기된 관계회사에 국제가격의 1/5-1/6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동 관련회사는 국제가격의 2/3 정도 가격으로 대형석유기업 산하 정유소에 매각하는 등 특혜 세제적용지역을 이용하여 상당분의 이익을 축척해 왔음. 러시아 정부는 2004년 1월부터 특혜세제 적용지역을 전부 폐지한 바 있음.

23) 2003년 7월의 법 개정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기본 세율은 347루블로 인상함.

24) 2001년 종전 3개 세금에 의한 예산수입은 1,600억 루블이었던 것에 대해, 2002년 지하자원 채굴세 도입으로 예산수입은 2,750억 루블로 급증함. 루끄오일은 2002년 지하자원 채굴세의 납세액이 2001년 해당 3개 세금의 납세액 합계보다 90% 증가했다고 밝힘.

	생산의 난이도에 따라 변동)	
지하자원채굴세 (과세대상 : 국내 원유가격)	-	
배당세	15%	러시아 기업 6% 외국 기업 15%

자료 : 최용권, 『러시아 석유·가스 개발현황과 전망 』,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04, p.32.

<표 2-11> 석유 수출세 산정 공식 (2004년)

가격조건	세율
평균가격이 톤당 109.5달러(배럴 환산 약 15달러)인 경우	0%
평균가격이 109.5달러에서 182.5달러(배럴 환산 약 25달러)인 경우	톤당 평균가격과 109.5달러 간 차액의 35%
평균가격이 182.5달러 이상인 경우	톤당 25.35달러 + 톤당 평균가격과 182.5달러 간 차액의 40%

주 : 국제시장 (지중해 및 로테르담)에서 우랄 브랜트유의 2개월 평균가격

자료 : 최용권, 『러시아 석유·가스 개발현황과 전망 』,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04, p.33

1999년 초, 1996년 여름 이후 폐지되었던 수출세가 재도입되었다. 종전에는 국제유가 동향을 조사하여 수출관세율을 정하였기 때문에 산출 공식이 불투명하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과세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아울러 2002년 1월부터 수출세[25] 산정공식이 도입되면서 예측성 곤란의 결점은 다소 시정되었다.

한편, 석유제품의 수출세는 관세법에 의거 2003년 1월부터 석유 수출관세의 90% 이내로 제한되었으나, 2003년 말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한은 폐지되

25) 현재 수출세는 69.9달러/톤으로 10월 1일부터 90-91달러/톤으로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었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의 수출관세율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수직통합형 석유회사의 납세 중 석유제품의 물품세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물품세 배분은 2003년에는 연방정부 예산 40%, 지방정부 예산 10%, 지역도로기금 50%로 배분되었는데, 2004년부터 지역도로기금 50%는 특별연방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었다.

<표 2-12> 석유제품의 물품세

단위 : 루블/톤

석유제품 종류	2003	2004
옥탄가 80 이하 가솔린	2,190	2,460
옥탄가 80 초가 가솔린	3,000	3,360
디젤연료	890	1,000
윤활유	2,440	2,732
합성가솔린	0	0

자료 : 최용권, 『러시아 석유·가스 개발현황과 전망 』,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04, p.34

이에 따라 석유분야 초과이윤에 대한 구체적 회수방안으로 지하자원 채굴세 인상, 지하자원 채굴세 차별화 실시, 수출관세의 인상 및 새로운 추가 수입세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지난 2003년 12월 23일 뿌찐 대통령은 러시아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회견에서 "석유회사들의 과잉수익은 수출관세나 지하자원 채굴세와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회수되어야 하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적어도 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 이후, 재무부와 경제발전무역부에서 수출 관세 및 지하자원 채굴세의 인상에 관한 구체적 검토가 시작되었다.[26] 먼저, 뿌찐 대통령은 석유 수출관세(수출세)를 인상하였다. 지금까지 국제유가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져 있던 수출관세율이 금년 하반기부터 4단계로 변경됨으로써 석유 수출관세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

26) 수출관세에 관한 내용은 최용권, 『러시아 석유·가스 개발현황과 전망 』,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04,와 국가정보원,『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자원개발 진출 자료집』, 서울, 국가정보원, 2005. 을 참고함.

다. 우랄산 원유를 국제가격 기준으로 배럴당 27달러 수준으로 가정한다면, 경제발전무역부는 수출관세 인상으로 약 20억 달러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표2-13> 현재 심의중인 석유 수출 관세율의 새로운 산정 공식(안)

가격조건	세율
배럴당 15달러 미만인 경우	0%
배럴당 15-20달러인 경우	배럴당 평균 가격과 15달러 간 차액의 35%
배럴당 20-25달러인 경우	배럴당 평균 가격과 20달러 간 차액의 45% + 톤당 12.78달러를 넘지 않는 액수
배럴당 25달러 이상인 경우	배럴당 평균 가격과 25달러 간 차액의 65% + 톤당 29.2달러를 넘지 않는 액수

주 : 국제시장 (지중해 및 로테르담)에서 우랄 브랜트의 2개월간 평균가격

자료 : 최용권, 『러시아 석유·가스 개발현황과 전망 』,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04, p.36

두 번째로, 지하자원 채굴세를 인상하였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톤당 347루블인 기본세액을 451.4루블(또는 400루블, 560.6루블)로 인상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세율인상 시기는 2005년 1월부터 실시되었으며, 이 채굴세 인상으로 앞으로 약 10억~16억 달러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 세 번째로, 석유제품의 수출관세를 인상하였다. 2003년 말에 '석유제품의 수출관세는 원유 수출관세의 90%를 상회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한이 철폐되었으며, 현재 석유제품의 수출관세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2004년 3월에 경제발전무역부는 가솔린, 경유, 디젤연료의 수출 관세를 원유 수출관세의 130%까지 인상하는 대신 중유의 관세수준을 원유의 7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러시아 석유제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디젤연료의 높은 비중(2003년 기준 약 50%)을 감안할 때, 이 제시안이 채택되면 큰 폭의 세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 개혁의 문제점도 보인다. 뿌찐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석유분야에 대한 과세 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산업분야에 대해선 세율을 인하하여 석유 가스 분야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시정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의 석유 수출 관세율 및 채굴세에 대한 인상 조치는 그 단적인 예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석유회사들은 설비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7] 그밖에도, 외국자본 도입을 위한 투자환경을 정비하였다.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원유생산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상류부문, 즉 개발 및 생산시설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투자의 주체는 국내 석유기업들과 외국자본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는데, 막대한 자금 부담과 선진 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외국자본의 도입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한 이유로 러시아는 PSA를 도입하였고, 러시아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33건의 생산물 분배계약 프로젝트가 생산물 분배법[28]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이하 'PSA법' 이라 함)을 적용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생산물 분배 계약이 성립된 3개의 프로젝트(사할린1, 사할린2[29], Kharyaga 외에 4번째로 체결된 Samotolor 유전은 세법관련 조항의 미비로 인해 계약 자체가 정지 상태에 있다. 그 밖의 PSA 프로젝트들도 다른 관련 법규와의 상충 등으로 거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PSA법 성립 과정을 살펴보면, 1994년 12월 대통령령으로 발표되었으나 당시 야당인 러시아 공산당의 반대로 심의가 늦어져 1996년 1월에야 발효되었다. 그러나 제정 당시 PSA법은 2가지 결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는 기존 지하자원법이나 관련 세법 등과 상충[30]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의회승인을 요하는 러

---

27) 최용권, 『러시아 석유·가스 개발현황과 전망 』,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04, p.37.

28) 상호계약에 따라 러시아 정부 (연방 및 해당지역)는 투자자에게 조광권을 부여하고 사업시행 및 관리업무를 위임하며, 개발에 필요한 경비는 채굴된 생산물로 보상하고, 최종이익은 정부와 투자자사이의 계약에 따라 배분함. PSA 계약의 이점은 대부분의 세금 및 지급금은 생산물 보상으로 대체함으로써 개발 이후의 생산량 및 가격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있음. 따라서 투자자는 계약기간 동안 이윤세, 로열티 및 의료보험료, 러시아국가 고용기금에의 지불 등의 납부의무만 부담함.

29) '사할린1' 및 '사할린2'프로젝트의 생산물분배계약은 PSA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체결·발효된 것으로 이미 합의된 조건에 따른 기득권은 보호받고 있음.

시아 기업 중에서 관련 리스트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1999년 1월의 개정에서 기존의 지하자원 관련법이나 세금 관련법과의 모순점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개발이 인정되는 매장량을 러시아 전체 매장량의 30%까지로 제한하였다. 풍부한 석유·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산유 지역 내 지방정부들은 세수증대를 위해 생산 분배 계약들이 조기에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 분배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러시아 상·하원에서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 전체의 이익이 우선 고려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도 있어 지방정부가 뜻하는 바와 같이 조속한 프로젝트 실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PSA법은 러시아 국내 자원개발원과 자원국수주의자간 대립과 타협의 산물로서 외국인투자 유치에 반하는 내용도 일부 있지만, 지하자원법과 비교하여 생산물의 국외반출을 보장하고 있는 점, 세제 변동으로 수익이 영향을 받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장치도 많으며, 특히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PSA법 제정 후 10여년이 지났지만 이 법률에 근거한 새로운 생산물 분배계약은 아직까지 발효되지 않고 있다. 이의 원인으로는, ①PSA법과 관련된 다른 법률들의 수정이 늦어져 부가가치세 면제 등 PSA법으로 보장되는 투자자 권리보호와 같은 법적 보장이 불충분했던 점, ②원유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의 국제가격이 오랜 기간 동안 약세상태에 있었던 점, ③의회의 자원국수주의 의원들 사이에서 PSA 프로젝트인 사할린1,2 프로젝트 계약은 외국투자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러시아의 국익을 현저하게 손상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003년 6월 개정된 PSA법에서는 오히려 국산화율 의무조항을 강화하였고, 광구 입찰시 러시아기업들이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만 외국인 참가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30) 예를 들면 PSA법은 생산된 원유의 100% 수출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영 파이프라인 회사인 뜨랜스네프찌로 하여금 PSA 프로젝트의 우선적인 파이프라인 이용을 인정케 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PSA의 프로젝트일지라도 운송수단을 확보할 수 없어서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임.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31]

특히 러시아 기업의 참여 확대 및 기자재의 국산화 의무 강화는 국내기업의 활성화와 고용확대를 기대한 것이지만,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외국기업의 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사할린 프로젝트에도 외국기업의 참여를 막고 있는 국산화율 조항이 적용[32]되는데, 향후 러시아의 WTO 가입을 앞두고 WTO에 위반되는 국산화율 조항이 언제 철폐될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한편, 최근에는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도 개별 외국인 투자자에게 특별한 인센티브[33]를 제공하기 보다는 세제, 사법제도, 은행제도, 관세제도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해외에 도피한 자본이 외자로 역 유입되어 국내자본을 압박할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영 석유기업의 민영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993년부터 시작된 러시아 석유산업의 조직 개편과정에서 우선 국영 석유부문의 자산을 모아 국영 석유기업인 '로스네프찌'가 조직되었으며, 이어서 '루끄오일', '유꼬스', '수르굿네프찌가스' 등 거대 수직통합형 기업이 설립되었다. 구소련 시대에는 신규 유전탐사는 정부의 지질부가, 유전개발 및 생산은 석유공업부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1991년 구소련 해체 이후부터는 러시아 정부는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직통합형 석유기업들의 정부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민영화를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2003년 3월 현재, 러시아 정부는 수직통합형 석유기업인 '로스네프찌'의 주식 전부, 원유 파이프라인 운영 기업인 '뜨랜스네프찌'의 주식 중 75%(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100%), 석유제품 파이프라인 운영기업인 '뜨랜스네프찌 프로덕eM'의 주식

31) 기존 PSA 프로젝트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주었다는 인식이 강하여 당분간 새로운 생산물 분배계약의 승인은 동결될 것으로 전망됨.

32) Local Content 조항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우대조치가 없는 통상의 세제가 적용됨. 투자자에게 러시아내 조달사실(기자재의 70% 이상, 조업원의 80%이상을 매년 보고토록 의무화함.

33) 중국의 경우 경제특구를 정하여 면세조치, 자유로운 외화획득 등 우대정책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이러한 우대정책보다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자본과 외국자본간 차별을 두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음.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2003년 초까지 대부분의 석유 기업이 민영화되었으며, 현재 남아있는 국영 석유기업인 ‘로스네프찌’의 민영화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민간 석유기업들의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참여 움직임과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는 2003년 1월에 ‘러시아 파이프라인 운영자는 ’ 뜨랜스네프찌 ‘ 외에는 생기게 할 수도 없다’라고 공고하는 등 민간 석유기업들의 석유 운송망 장악시도를 견제하고 있다. 유럽 수출과 국내 유통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석유 파이프라인 운송부문은 러시아의 최대 재정 수입원이자 민간 석유기업의 통제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영 석유운송기업인 ‘뜨랜스네프찌’와 ‘뜨랜스네프찌 쁘로덕뜨’(석유제품 운송기업)의 민영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뜨랜스네프찌'의 파이프라인 할당통제로 인해 민간 석유회사들의 원유수출 및 국내공급에도 차질을 야기하는 등 석유기업들의 원유 증산의욕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체적으로 러시아 석유산업의 민영화는 이로써 일단락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천연가스에 관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현재 천연가스는 러시아 에너지 수요의 약 53%를 차지하며, 발전 및 민간부문의 주력 에너지원이다. 수출량의 약 70%는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외화획득원일 뿐만 아니라 재정 세입 중 25%는 가스 산업에서 얻고 있어 재정수입원으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재정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가스 산업을 통제 · 관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가스가격을 국제가격의 약 1/6 수준[34] 으로 억제하는 등의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은 '가즈쁘롬' 경영압박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스 산업에 대한 관리 강화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러시아 가스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가즈쁘롬'의 사업 분할과 경영투명화는 옐찐정부 시절부터 주요 개혁과제[35] 였다. 취임 이후 '가즈쁘롬'의 불투명한 경영[36]을 지적해 왔던

34) 2002년의 가스판매 단가를 통계 등을 통해 추계하면, 러시아 국내 공급용이 13.3달러/천 ㎥. 유럽 수출용이76.9달러/천 ㎥로 국내 가격은 수출가격의 약 1/6 수준임.

뿌찐 대통령은 2001년 5월에 뱌힐레프 사장을 퇴임시키고 그 후임에 자신의 측근이었던 에너지부 차관인 알렉세이 밀러를 임명하는 등 '가즈쁘롬'의 경영에 대한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계속 강화하여 왔다. 또한, 뿌찐 대통령은 '가즈쁘롬' 사업부분 분리를 하였다. '가즈쁘롬'의 사업 분리의 핵심은 국내 가스 생산의 약 90%를 생산하고 있는 '가즈쁘롬'의 생산부문, 파이프라인 운송 부문, 국내 판매부문을 분리한 다음, 생산 및 국내 판매 부문에 복수 기업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러시아 경제발전무역부는 파이프라인 운송 부문을 분리하여 관련 가스기업들 모두에게 평등한 파이프라인 이용권을 보장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가즈쁘롬' 측은 가스 부분의 신용하락을 차입금리가 비싸진다면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또 '가즈쁘롬'에 여신을 제공하고 있는 유럽 등 국제금융단도 '가즈쁘롬'의 신용도 하락을 우려하여 경제발전무역부의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EU도 가스의 안정적 공급보장이라는 면에서 이 분리 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가즈쁘롬'의 사업 분할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가즈쁘롬'은 가스 생산량 중 약 70%를 러시아 국내용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낮은 국내가격으로 러시아 국내에서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가격구조 하에서 정부가 바라는 가스부문의 새로운 경쟁참가 기업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낮은 국내 가스가격은 '가즈쁘롬' 자체의 경영, 나아가 신규 투자에 커다란 제약요인[37]이 되고 있다. '가즈쁘롬'은 생산 및 수출 시장

35) '가즈쁘롬'은 설립 이래 체르노모르진(전직 총리) 등 거물사장의 비호를 받으며 러시아 연방정부의 개혁 요구에 반대하여 왔음.

36) 가스 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거액의 자금 대출 및 채무보증,'가즈쁘롬'의 자산을 시장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해 주주 이익에 손실을 초래한 점, '가즈쁘롬' 경영간부의 친족이 경영하는 기업과의 거래 등이 경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37) 국내 가스도매 가격은 1,000㎥당 약 22달러 수준에서 억제됨에 따라 '가즈쁘롬'의 투자능력(자금조달능력)을 제한하여 상류부문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음.
독립계 가스회사가 생산하는 천연가스는 국가통제 대상이 아니나 통제가격의 가스가 국내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상황 하에서는 대폭적으로 가격 인상은 불가능하므로, 독립계 가스회사의 도매가격 수준은 가즈쁘롬의 통제가격보다 약간 높은 수준(평균적으로 약 20% 높음)이고, 독립계의 가스회사는 1,000㎥/100㎞당 16.8루블의 수송료를 가즈쁘롬에 지불해야 하므로 가즈쁘

확대를 위해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국내 가스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연방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왔다. 그리고 주력 시장인 유럽시장에서의 가격자유화에 따른 경쟁 격화로 수출가격이 하락하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불안정 요인이 있는 만큼 국내 가스 가격의 현실화는 절실한 문제이다. 뿌찐 대통령도 국내 가스가격을 인상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실행할 경우 주력 에너지연료의 가격상승이 물가상승, 러시아제조업 경쟁력 저하 등 러시아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가스가격 인상[38]과 관련하여 연방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략 2020' 에는 2000년 가격을 기준으로 2003년까지 250%, 2005년까지 350% 인상하고, 2007년에는 유럽시장의 가스가격과 균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롬보다도 유리한 입장에서 있다고는 볼 수 없음.

38) 2004년 러시아와 EU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국내 천연가스 요금을 1,000㎥당 2004년 까지 27~28달러, 2006년까지 37~42달러, 2010년까지 49~57달러로 인상하기로 합의함.

제3절. 러시아 자원 개발 현황

러시아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풍부한 부존자원을 경제의 안정 및 지속발전을 위한 주동력으로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소련 당시부터 유럽지역 및 서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노력을 적극 전개해 왔으며, 최근 극동・동시베리아의 미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점차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사할린 1・2 및 하랴다(야말로 - 네네츠 자치관구) 유전 ・가스전 등에 생산물 분배협정 방식[39]을 일부 도입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화 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가 러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40]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에너지 개발・수급을 위한 활동방향을 규정한 '에너지 전략 2020'을 채택하여 현재 시행중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석유・가스 및 우라늄・동 등 주요 전략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 및 자원 민족주의[41]의 움직임도 강화되는 추세이다.[42]

---

39) 생산물분배협정(PSA)방식이란 투자자가 탐사・개발・생산 및 판매와 관련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자원을 생산하고, 생산물에서 지출비용 만큼을 차감한 잉여생산물을 계약된 분배율로 나누는 형태를 말함.

40)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유・가스 산업은 GDP의 약 25%, 수출의 50%, 재정수입의 33%를 차지하고 있음.

41) 자원 민족주의에 관련한 내용은 *세계일보,* 2006년 10월 24일자, "석유 민족주의 확산...공룡기업 흔들"을 참조.

42) 세계 최대 가스회사인 가즈쁘롬의 정부 지분을 50%이상으로 확대했으며,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찌가 민간 석유회사인 유꼬스의 자산을 인수하는 등 국가의 에너지 산업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음. 주요 전략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개발참여 지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1월에 '지하자원법'을 개정하였음.
김덕주,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개발 동향과 우리의 대응 : 극동 시베리아지역을 중심으로", 『2006 봄 주요국제문제분석』,서울, 외교안보연구소, 2006, p.192.

<표2-14> 핵심 에너지기업 통제·역할강화 동향

기 업 명	내 용
가 즈 쁘 롬	- '메드베데프' 대통령 행정실장이 이사회장 겸임 - 가즈쁘롬사 지분 10.74%를 71.5억불에 매입, 정부 지분을 50%이상으로 확대 (05.6) - 사할린-2 주관사인 '셸'지분 25% 획득 (05.7) - 5위 석유사 '시브네프찌' 지분 인수 협상 중 - TKN-BP사의 꼬빅따 가스전 개발권 확보 추진 - 독 E.ON·BASF사와 시베리아 가스 수송을 위한 북유럽해저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합의 (05.9)
로 스 네 프찌	- '세찐'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이 이사회장 겸임 - '유간스크네프찌가스' 인수 (04.12)
유 꼬 스	- '호도르꼽스끼' 회장 구속 (03.10)·8년형 확정 (05.9) - 체납세 회수 명분 하에 '유꼬스' 핵심 자회사 '유간스크네프찌가스'지분 76.79% 강제 매각(04.12)

자료 : 국가정보원,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자원개발 진출 자료집』, 서울, 국가정보원, 2005. p.26.

현재 러시아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8위에 달하며 전 세계 매장량의 6%를 차지하고 전체적으로는 총 95억톤에 달한다. 이것은 앞으로 22년간 채굴 가능한 규모이다. 이중 서시베리아 지역에 70% 이상 매장되어 있으며, 동 시베리아 지역에는 4%, 극동지역에는 3%정도가 매장되어 있다. 러시아의 석유 생산은 구소련 이후 감소세를 보여 오다가 1990년대 말 국제 고유가와 석유산업 개혁 등에 힘입어 성장세로 전화되었으며 2003년도 러시아 전체 생산량 중 서시베리아가 70.86%를 생산했다(표2-15 참조). 그리고 러시아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1위로 전 세계 매장량의 26.7%에 해당하는 48 ㎥이며, 가채연수는 약 81년으로 추산된다. 서 시베리아 지역에 67%이상이 집중 매장되어 있으며, 동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는 9%가 매장되어 있다. 천연가스 생산은

2003년에 전년대비 4.2%증가한 6.202억㎥[43]를 생산했으며, 이중 서 시베리아 지역[44]이 생산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5> 지방별 석유 생산 추이

(단위 : 천톤)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극동	사하공화국	305	419	436	418	365
	사할린주	1,863	3,362	3,767	3,252	3,208
동 시베리아	끄라스야노야르스끄지방	22	52	46	57	71
	따이미르 자치관구	1	0.7	0.6	0.5	12
	에벤끼 자치관구	21	51	45	57	71
	이르꾸츠끄주	14	25	44	56	59
서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끄주	34	38	85	238	485
	옴스끄주	-	-	0.4	62	286
	똠스끄주	6,108	6,903	7,754	10,592	13,656
	쮸멘주	495	556	682	837	894
	한띠-만시 자치관구	169,945	180,888	194,226	209,897	233,150
	야말로-네네츠 자치관구	30,266	32,025	36,345	43,431	49,125

자료 : 국가정보원,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자원개발 진출 자료집』, 서울, 국가정보원, 2005. p.37.

<표 2-16> 지방별 천연가스 생산 추이

(단위 : 백만㎥)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극동	사하공화국	1,602	1,628	1,623	1,612	1,604
	사할린주	-	7	8	9	9
동 시베리아	끄라스노야르스끄지방	1,762	1,860	1.895	1,862	2,009
	따이미르 자치관구	413	401	385	389	535
	에벤끼 자치관구	-	-	-	-	0.2
	이르꾸츠끄주	-	6	23	31	41
서	노보시비르스끄주	-	-	-	36	

43) 전 세계 생산량의 22.1%로 세계 1위에 해당하는 생산량임.
44) 극동지역은 0.6%이고 동 시베리아 지역은 0.1%를 차지함.

시베	옴스끄주	2	3	9	12	13
리아	똠스끄주	152	2,595	3,720	4,444	5,264

자료 : 국가정보원,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자원개발 진출 자료집』, 서울, 국가정보원, 2005. p.35.

이러한 석유 및 가스의 개발 상황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장량이 확인된 러시아내 대부분의 석유·천연가스전들에서 장기간 채굴이 이루어짐에 따라 고갈현상이 빠르게 진행[45]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와 기업들은 미개발 매장지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극동·시베리아 지역에 관심을 갖고 탐사·개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역별로는 극동·동 시베리아 지역에서 오는 2020년까지 213개 유전·가스전이 분양될 계획인 가운데 사할린 및 사하공화국·이르꾸츠끄시 등에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며 서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최대 매장지인 야말로-네네츠 자치관구를 중심으로 신규 유전 개발 등 생산을 유지[46]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효율적인 자원개발·수송을 위해 동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사업 추진 등 수송망 확충에도 주력을 하고 있다.

<표 2-17> 극동·시베리아 유전·가스전 개발 사례

구분		내용
끄라스노야야르스끄 지방	유루브체노-또홈스꼬예	- 1982년 발견, 1999년 5월 개발승인 - 추정매장량 : 원유 5,840만톤, 가스 937억㎥ - 주요 참여기업 : VSNK('유꼬스'70.2%, 헝가리 Metalloinvest 28.5%)
	꾸윰빈	- 원유 매장량 : 15.3억 배럴 - 주요 참여기업 : '유꼬스'(1998년 탐사·개발권 획득)
	떼르스꼬-까모프	- 원유 매장량 : 28.3억 배럴 - 주요 참여기업 : '유꼬스' (1997년 개발권 획득)

45) 2005년 3월 16일 러시아 천연 자원부는 확인된 유전·가스전 중 이미 75% 이상이 개발되고 있는 상태로 2015~17년경 경제성 있는 유전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함.

46) 서시베리아 지역 대형유전들은 고갈·질 저하 현상이 노정이며, 현재 55~75%정도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임.

	반꼬르	- 2001년 러시아 정부의 개발승인 획득 - 원유 매장량 : 9.2억 배럴(경질, 저유황) - 주요 참여기업 : Yeniseineft - 투자 예정 금액 : 33억불, 14~20만b/d생산계획
이르꾸츠끄 주	코빅타	- 추정매장량 : 가스 2,967㎥(실제 1조㎥이상 추정) 주요 참여기업 : Russia Petroleum (TNK-BP 62.4%,인테로스 그룹 25.8%, 이르꾸츠끄 주정부 11.2%)
	베르흐네촌	- 추정매장량 : 원유 1억 5,950만톤, 가스 117억㎥ - 주요 참여기업 : '베르흐네촌 석유·가스' (1992년 개발권 취득) - 상업 생산을 위해서는 수송루트 해결이 선결과제
사하공화국	딸라깐	- 추정매장량 : 원유 1억 600만톤, 가스 1,648억㎥ - 주요 참여기업 : '수르굿네프쩨가스' - 러시아 천여자원부는 2003년 10월 '레나네프쩨가스' ('유꼬스'자회사')의 개발권 회수
	차얀다	- 추정매장량 : 원유 990만톤, 가스 1,648억㎥ - 2002년말 '사하 석유가스'의 개발권 종료, 현재 러시아 정부의 입찰 준비중
	스레드네-보뚜오빈	- 추정매장량 : 원유 5,440만톤, 가스 1,523억㎥ - 참여기업 : '사하 석유가스' - 생산량(1,200b/d)이 계획에 미달, 면허박탈 검토중

자료 : 김덕주,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개발 동향과 우리의 대응 : 극동 시베리아지역을 중심으로", 『2006 봄 주요국제문제분석』,서울, 외교안보연구소, 2006, p.207.

<표 2-18> 사할린 프로젝트별 사업 개요

프로젝트	주요 광구	매장량(톤,㎥)	참여사 및 지분	비 고
사할린-1	Odoptu Chaivo Arkutun-Dagi	원유2억9,000만 가스 4,850억	엑손모빌 30% SODECO 30% ONGC 20% SMNG 11.5% Rosneft 8.5%	가스전이 육상에 근접하고 낮은 수심 PSA방식/PNG 총 투자액 120억불

사할린-2	룬스코예 필뚠-아스또흐	원유1억5,000만 가스 5,500억	SHELL 55% 미쓰이 25% 미쓰비시 20%	가스전이 육상에 근접하고 낮은 수심 PSA방식/PNG
사할린-3	끼린스끼	원유4억5,300만 가스 7,200억	-	엑손모빌/세브론 텍사코 개발권 회수 (04.1) 06년 중 재입찰
	East Odoptu, Ayashky	원유1억6,700만 가스 670억	-	-
	베닌스끼	원유 5,100만 가스 5,780억	로스네프찌	2003년 로스네프찌 개발권획득
사할린-4	북슈미차	원유 4,700만 가스 3,100억	로스네프찌51% BP 49%	-
	북에스펜베르끄	원유 5,900만 가스 1,950억		-
	아스뜨라한	가스 890억		2003년 탐사결과 매장량 부족
사할린-5	Vostochno-Shmidtovsky	원유2억1,200만 가스 2,450억	로스네프찌51% BP 49%	04년 시굴성공, BP 50억불 투자 예정
사할린-6	Pogranichny	원유 3억 가스 1,420억	로스네프찌50% 뻬뜨로사흐50%	가스전이 수출항에 근접 개발에 장기 소요 전망
사할린-7	Arsenyevskaya East-Anivskaya	원유 1,100만 가스 910억	-	-
사할린-8	Boshnyakovskaya	원유 4,100만 가스 250억	-	-
사할린-9	Spelikovskaya Kholmskaya	원유 2,600만 가스 850억	-	-

자료 : 김덕주,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개발 동향과 우리의 대응 : 극동 시베리아지역을 중심으로", 『2006 봄 주요국제문제분석』,서울, 외교안보연구소, 2006, p.208.

그밖에 동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계획을 살펴보면, 이르꾸츠끄 유전지대에서 생산된 원유를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한 장거리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라 칭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2단계에 걸쳐 이르꾸츠끄에서

연해주까지 연결되는 송유관을 건설하되, 우선 1단계로 따이셰트-스꼬보로디노 간에 공사를 진행 중이다.[47] 그러나 바이깔호의 오염 등을 우려하는 환경주의자・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19>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계획안

구 분	건 설 단 계	
	1 단 계	2 단 계
구 간	따이셰뜨-스꼬보로지노	스꼬보로지노-뻬레보즈나야
연 장	2,269km	1,919km
수송능력	년 3,000만톤(60만b/d)	년 5,000만톤(100만b/d)
투자비용	60억불	55억불
건설기간	3년 ~ 3년 6개월	공급물량 확보 후 결정

자료 : 국가정보원,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자원개발 진출 자료집』, 서울, 국가정보원, 2005.p.50

1990년대 중반 중국 CNPC사와 러시아 유꼬스사를 중심으로 앙가르스끄- 다칭간 노선 2.213km・수송량 40~60만b/d에 달하는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1999년 2월 중국 '주룽지'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서로간의 타당성 조사 실시에 합의하였다. 2000년대 들어 일본 정부가 연해주까지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희망하면서 노선유치 경쟁에 참여를 하였고 2004년 12월에 러시아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진출로 석유시장을 다변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해주 노선[48]으로 확정 결정하였다. 국영 송유관 건설사인 '뜨란스네프찌'주도하에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사업 추진을 위한 천연 자원부・산업에너지부 및 지방정부간 협력 등도 규정하고 있다. 2005년 4월 26일 러시아정부는 사업 기본방향을 제시 하였다. 우선 2008년까지 따이셰뜨-스꼬보로지노간 연간 수송능력3,000만톤 의 송유관, 뻬레보즈나야 원유수출 터미널 건설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1단계 건설 세부노선은

47) 공급물량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2단계 공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
48) 노선은 따이셰뜨-스꼬보로지노-뻬레보즈나야로 구성되어있음.

따이셰뜨-우스뜨꾸뜨-까자친스꼬예-차얀다-스꼬보로지노이고, 뻬레보즈나야에는 30만톤 접안규모의 하역터미널, 저장용량 60만㎥의 플랜트시설 (탱크 5~7개)등 건설을 목표중이다. 이후 스꼬보로지노에서 뻬레보즈냐야까지 연간 수송능력 5,000만톤의 송유관을 건설할 계획이다. 러시아 정부는 2005년 말경 세부구간별 건설계획, 기술적 타당성 검토결과 등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한편, 뿌찐 대통령은 2005년 7월에 2005년 중 따이셰뜨-스꼬보로지노간 공사에 착수하여, 년 2,000만톤을 중국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철도로 태평양 연안에 수송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극동 · 동시베리아 통합가스개발계획을 살펴보면 극동 · 동시베리아 지역의 안정적인 가스공급과 해외수출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지역 내 가스전들을 통합 개발하려는 계획 하에 특정 가스전을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용으로 지정하지 않고 내수 공급과 수출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또한, 가스관 건설 및 수출창구를 <가즈쁘롬>사로 단일화 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2002년 7월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가스의 생산 · 수송 및 공급의 통합시스템 작성계획' 을 발표하고 <가즈쁘롬>을 중심으로 UGSS안을 작성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가즈쁘롬사'[49]는 사할린 · 이르꾸츠끄 · 야꾸찌아 · 끄라스노야르스끄 등 4개 지역에 가스 생산 센터를 설치하며 사할린지역 가스를 한국과 중국 등에 수출하는 대신 동 시베리아 차얀다 · 꼬빅따 가스전 등은 국내용에 충당하는 방안으로 선호한다. 또한, 극동 ·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을 기존의 국가 천연가스망과 연결하되 주요 방안은 비용 절감을 위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병행해서 건설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50] 및 '에너지 전략 2020' 등과 같은 연방 차원의 프로그램을 기초로 극동·시베리아 자원개발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수송망 확충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에도 주력하고 있다.

---

49) 2005년 9월 7일 리아-노보스찌 통신, '가즈쁘롬'사가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을 유보하고 사할린 지역 우선 개발을 러시아 정부 측에 제의했다고 보도함.

50) 이 프로그램에는 사할린주와 사하공화국의 유전·가스전, 네륜그리·엘가·하라노 탄광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음.

<표2-20> 극동・시베리아지역 주요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

극 동	- 사할린 유전・가스전에서 하바롭스끼 지방 타타르스키 해협을 통과 제까스뜨리로 연결되는 해년마다 1,250만톤 규모의 송유관 건설 - 사할린-2 프로젝트와 관련 사할린 남북을 연결하는 ・가스관 및 쁘리모르스끄 환적시설 건설
시베리아	- 에벤찌 자치관구내 유루브체너-또홈스꼬예 유전과 딸라깐・베르흐네촌 유전을 앙가르스크 송유관망과 연결하는 지선망 건설 - 동시베리아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잇는 송유관 및 중국 다칭으로 분기되는 지선 부설

자료 : 국가정보원,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자원개발 진출 자료집』, 서울, 국가정보원, 2005. p.34

<표2-21> 주요 지방의 자원개발 계획 및 투자유치 추진 사례

구 분	발 언 내 용
하바롭스끄 지방	- 사할린-꼼소몰스끄・나・아무레-하바롭스끼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 '사할린・연해주・하바롭스끼 가스화 연방프로그램'(99.6)의 일환으로 사업 진행 중- '이사예프' 주지사, 극동・시베리아는 지리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한다고 강조하고 송유・가스관 건설, 자원개발 분야 등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경협 희망(05.6)
깜차까주	-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 체코 기업 참여로 캄차카 북서쪽 약 100km지점에 건설 * 뻬뜨로빠블롭스끼-캄차카까지 추가- 건설 계획 하에 재정 확보 방안 모색 중 - 지혈 발전소 개발 :EBRD 재정지원하에 무뜨놉스끼 발전소 2단계 프로젝트 진행 (총 100MW급)
사할린주	- 경제성이 높은 유전・가스전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관련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외국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 - 현재 사할린-1~9 프로젝트 추진 중

자료 : 국가정보원,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자원개발 진출 자료집』, 서울, 국가정보원, 2005. p.35

또한 <표2-21>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보인다. 러시아에서 지방은 연방정부에 대해 종속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제개발 프로그램 추진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극동·시베리아 지역 내 각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연방차원의 지역경제발전 프로그램 등에 입각하여 자원개발 ·파이프라인 건설계획을 설립 및 시행할 수 있다[51].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외국인 투자에 적극 관심을 갖고 유치노력을 적극 전개 중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러시아의 에너지 개발정책과 더불어 러시아의 에너지 외교정책을 알아보자.

51) 연해지방 정부는 2005년 9월 블라디보스똑을 방문한 '그레프' 경제개발통상 장관에게 동 시베리아 송유관·정유공장 건설 등을 2010년까지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보고함.

제3장.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 실태

러시아 대외 정책은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지속하는데 있다. 뿌찐 정부는 출범 후 외교·안보 정책의 목표를 국제사회에서 강대국 지위회복과 다극화된 국제 질서의 구축, 체제 전환에 호의적인 국제환경 조성, CIS 우선주의, 경제·외교 강화, 핵 무장력 강화 및 재래식 무기 현대화, 반테러 및 WMD 비확산 등으로 설정하여,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적으로는 동·서양에 대한 균형 정책을 강화하고, 관련국과는 사안별로 협력하는 신자유주의의 시각인 실용주의 외교를 지향해 왔다.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을 통한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고, 국제적인 고유가는 1998년 8월 발생한 금융·외환위기 이후 러시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 경제를 지속적으로 시현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실제로 뿌찐 정부는 1999년 이래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 도입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구소련 시대에 빌린 차관을 제 때에 상환하거나 또는 조기 상환해 오고 있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2003년 러시아를 사상 처음으로 '투자적격' 국가로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그 동안 러시아의 대외 경제·통상 협력 외교의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실제로 뿌찐 정부는 이라크 전쟁 발발 등 중동 사태의 악화에 따른 대체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러시아의 중요성을 십분 활용하여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의 강화, 대외적으로는 에너지 공급 외교를 활성화해 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에너지가 러시아의 대외 관계는 물론 국내 경제에서 최근처럼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 전례가 없었다. 국내적으로 2003~2004년 기준 석유 및 가스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차지했으며, 고유가의 지속에 따른 외화 획득 증가로 균형 재정의 유지와 외채 상환 등 전환기 러시아 경제가 당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러시아는 1970년대부터 서유럽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이었으며, 동유럽의 경우 유일한 에너지 공급국이었다. 소연방 붕괴 후 러시아의 역할은 더욱 커졌으며, 그 결과 유럽은 석유 및 가스 총 수입량의 44%와 25%를 러시아에서 수입

하고 있다. 2005년에 러시아는 미국, 유럽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에너지를 대미 · 대EU 외교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오고 있다. 동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경우, 동북아 지역은 주요 에너지 수입국이 위치해 있고, 이들 국가의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 개발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관심을 크게 증대시켜 왔다. 송유관 노선을 둘러싼 중, 일간 경쟁 유도가 증명해 주듯이, 뿌찐 정부는 2007년에도 자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중국, 일본, 한국은 물론 우끄라이나 등 CIS 일부 국가들, 그리고 미국, 유럽에 대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다. 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외 에너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1.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러시아 입지 강화, 국내 에너지 기업의 수출 가능성 최대한 활용, 국제 시장에서의 러시아 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의 경제력 제고

2.에너지 부문의 동등한 대외경제활동 보장, 국내 기업의 해외 에너지 시장, 금융 시장 및 첨단 에너지 기술 이용 보장

3.상호 호혜적인 조건으로 합리적인 규모의 외국인투자 유치 협조

이러한 기본정책 목적에 부응하여, CIS, 유럽 및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였던 대외정책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동아시아 국가들(일본, 중국, 한국 등)과의 관계개선도 적극 도모하고 있다. 이어 러시아의 대외 에너지 협력에 관하여 국가별로 자세히 알아보자.

제1절. 구 소련권[52] 과의 에너지 협력 실태

과거 정치 · 군사 · 경제면에서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후 러시아로부터의 정치 ·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여 왔다. 아제르바이잔은 정치면에서 이슬람 문화를 공유하는 터키와의 관계 강화를 꾀함과 동시에 인접국 아르메니아와의 국경분쟁은 유럽안전보장협력기구(OSCE)을 통해 해결해 왔다. 뚜르끄메니스딴은 1992년 러시아·CIS간 집단안전보장조약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고 1995년 12월에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획득했다. 러시아와 6,800㎞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까자흐스딴은 러시아군의 주둔 등 러시아와 여전히 깊은 정치 · 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면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간섭을 배제하는 한편, 서방측과 인근 이슬람 국가 및 CIS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중시하고 있다. 구 소련권 국가들의 이러한 경제적 자립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는 정치적으로는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 국가들의 분리 · 독립 운동이 러시아 국내에 파급되지 않도록 이들 국가의 내정 안정에 대한 지원에 힘쓰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이들 3개국의 석유 · 가스 개발과 관련하여 국제 메이저와 경쟁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는데, 특히 석유 · 가스 파이프라인의 루트선정 문제와 까스피해 영유권 문제는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먼저 파이프 관에 관한 문제를 알아보자. 1990년대 중반 이후 Azeri Chirag Gneshli 유전(아제르바이잔), Kashagan 및 Tingiz 유전(까자흐스딴) 개발 등 까스피해 연안의 유전개발을 위해 세계 석유메이저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까스피해 연안 국가들은 유럽 국가로 석유 · 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

52) 구 소련의 구성체는 러시아 · 우끄라이나 · 벨로루시 · 우즈베끼스딴 · 까자흐스딴 · 아제르바이잔 · 몰다비야, 뚜르끄메니스딴 등 15개 공화국임. 그 중 러시아와의 에너지 분야에 관련이 깊은 카스피해 인접의 중앙아시아인 아제르바이잔, 까자흐스딴, 뚜르끄메니스딴과 동유럽권인 벨로루시, 우끄라이나로 한정함.

이를 탈피하기 위해 각 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조직하여 러시아를 우회하는 파이프라인 루트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응책으로 뿌찐 정권은 러시아 경유 파이프라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건 정비에 힘쓰는 한편, 구 소련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회유책[53] 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는 2001년에 까자흐스딴 및 뚜르끄메니스딴과 천연가스 탐사 · 생산 · 운송 분야의 장기 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2년 1월에는 러시아와 까자흐스딴, 뚜르끄메니스딴, 우즈베끼스딴 4개국의 가스 생산기업에 의한 협력체 창설 구상을 제안했다. 러시아가 이처럼 구 소련권 국가와의 관계를 협력 및 상호이익 존중의 관계로 전환시킨 요인 중 하나는 최근 까스피해 지역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심[54] 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까스피해 영유권 문제 역시 구 소련권 국가와 러시아아간의 문제로 국제사회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제2의 페르시아만으로 각광받고 있는 까스피해는 러시아와 까자흐스딴, 아제르바이잔, 뚜르끄메니스딴 및 이란으로 둘러싸인 폐쇄형 내해(內海)로서, 이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는 육로운송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원유 파이프라인이 어떤 국가를 거쳐 건설되느냐가 까스피해 유전[55] 개발과 관련한 국제적 관심사이다. 1991년 이전까지 구소련과 이란은 까스피해를 호수로 간주하고, UN 해양법 조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협약을 맺었다(1921년, 1940년). 이 협약에서는 해저 국경과 해저 자원의 주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91년 말 까자흐스딴 등 3개국이 독립하고 경제건설을 위해 까스피해 해저의 석유 · 가스자원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

53) 과거 옐찐시대에는 러시아는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장악하면서 각 국에 대한 수출 할당량을 관리하고, 러시아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여러 형태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였음.

54) 미군이 9 · 11 테러사건 이후 아프간 전쟁을 빌미로 그루지야, 우즈베끼스딴, 끼르끼즈 등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군의 지역 안보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음. 또한 뿌찐 대통령은 미국과의 '견제적 협력' 속에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한편, 까스피해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의 확산을 견제하면서 범 터키주의를 경계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55) 까스피해에는 750억 배럴의 석유와 6조 9,000억 ㎥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라 연안 5개국간 영유권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까스피해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러시아와 이란은 까스피해를 '호수'로 간주, 국제해양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도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아제르바이잔과 까자흐스딴은 국경선에 따라 해저자원도 분할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993년 이후 까자흐스딴과 아제르바이잔은 해저자원 분할을 둘러싼 논의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서방측 석유기업들과 까스피해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러시아도 1998년부터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까스피해 분할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현재, 까자흐스딴, 아제르바이잔의 프로젝트에는 러시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고, 구소련 4개국 간에 국경에 관한 여러 개의 이국 간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소련 4개국 간에는 이국 간 협정이 이어지면서 입장 차이가 해소되고 있지만, 이란이 분할이나 분할방법(중간선에 따른 분할)에 계속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분쟁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란의 주장은 '중간선'이 원래 구소련이 일방적으로 정한 경계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고, 러시아와 까자흐스딴, 아제르바이잔이 주장하는 '연안선의 길이 비율에 따른 분할'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분할한다면 20%씩 균등하게 분할[56]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란이 균등 분할 안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연안선 비율에 따른 분할'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영해가 13%에 지나지 않고, 그 구역 내에 유망한 석유·가스 자원이 없다는 데 있다. 또한 이란은 이국 간 협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까스피해의 법적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는 까스피해 연안 국가들은 개발 프로젝트를 동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들어 이란 정부도 이국 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아제르바이잔 대륙붕 개발에 이란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56) 까스피해 영유권 분쟁해결과 관련 까스피해 연안 5개국(러시아, 까자흐스딴, 아제르바이잔, 이란, 뚜르끄메니스딴)은 까스피해를 해안선에 따른 분할 또는 균등분할을 주장하면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19%), 까자흐스딴(29%), 아제르바이잔(18~19%)은 해안선 길이에 비례한 분할을, 이란과 뚜르끄메니스딴은 균등분할(20%)을 요구하고 있음.

때 까스피해 법적 지위 문제는 머지않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표 3-1> 까스피해 주변국들의 2국간 국경협정

1997년	까자흐스딴, 아제르바이잔	5개국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까지 중간선을 잠정 국경으로 간주
1997년	까자흐스딴, 뚜르끄메니스딴	5개국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까지 중간선에 따라 분할
1998년	까자흐스딴, 러 시 아	카스피해 북부의 해저를 중간선에 따라 분할하고, 해상은 공동 관리함. 중간선은 양국의 경제이익을 감안하여 수정(유전의 상호 개방)
2001년	아제르바이잔, 러 시 아	중간선에 따라 해저를 분할하나, 상호간 항해의 자유는 인정함. 또한 법적 지위 확정을 위해 5개 당사자국 모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일치

자료 : 최용권, 『러시아 석유・가스 개발현황과 전망 』,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04, p.61.

또한, 2006년 1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역시 가스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표출하였다. 러시아-우끄라이나 가스분쟁[57]은 비단 양국 간의 분쟁 차원을 넘어 러시아 가스의 수입국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수출 전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중요한 사건이었다. 러시아는 우끄라이나와의 가스분쟁을 통해 가스라는 새로운 무기를 이용하여 세계에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려는 야심을 보여 주었다. 결국 이번 가스분쟁으로 러시아는 우끄라이나에 230달러로 가스를 공급한다는 명목상의 명분만 얻은 반면, 우끄라이나는 실질적으로 95 달러라는 적절한 수입가격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통과료까지 인상함으로써 실리를 챙겼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가스분쟁이 보여준 러시아의 대CIS 가스 수출 전략은 다음과 같다. 각 구성공화국들의 독립과 구소련의 해체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린 러시아는 최근 에너지를 무기화하여 자신들의 잃어버린 영향력을 주변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기본전략을 가지고 있다. 우끄라이나, 몰도바 등 대부분의 CIS 국가들은 친서방 정책을 앞세워

57) 러시아와 우끄라이나의 가스분쟁에 관한 내용은 신현준, “러시아-우크라시아 가스수출전략,” 『월간끼예프 세계경제』, 제2월호,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6을 참고.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가스에 대해 러시아에 종속되어 있는 CIS국가들의 한계를 이용하여 국가별로 차별화된 수출가격정책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우끄라이나 가스분쟁을 전후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본 러시아의 CIS 가스수출 전략은 2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첫째, CIS 국가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낮은 가스 수출가격을 적용한 잠재적 경제보조정책을 탈피하여, 러시아와의 정치적·전략적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수준의 가스수출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2006년 들어 러시아는 CIS에 수출되는 가스가격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인상 폭은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다. 최근 러시아와의 통화통합 및 경제통합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해중인 벨로루시의 경우 2006년 러시아 가스수출가격은 2005년 가격인 47달러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반면 그루지야와 아르메니아는 기존 60달러에서 110달러로, 우끄라이나는 초기 230 달러를 요구하다가 협상을 통해 95달러로 인상되었다. 러시아는 지난 1월 16일 몰도바와의 가스수출가격 협상에서 2006년 4월 1일까지의 가스 공급분에 한하여 기존 80달러에서 37.5% 인상된 110달러로 인상하였다. 물론 러시아의 CIS 가스수출가격은 유럽 수출가격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잠재적 경제보조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스수출가격의 인상을 통해 잠재적 경제보조의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으며, 그 정도를 러시아에 우호적인 정도, 러시아와의 전략적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편차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러시아의 CIS 가스수출 기본전략은 수출가격 차별을 통한 해당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러시아는 러시아 가스의 유럽수출 가스관을 소유하고 있는 CIS 국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유럽 수출로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현재 동유럽을 포함한 EU 국가로의 수출은 벨로루시와 우끄라이나 가스관을, 발깐지역으로의 수출은 몰도바 가스관을 경유하고 있다. 벨로루시는 러시아와 경

제통합 논의를 진행시킬 정도로 친러시아 성향을 띄고 있어 논외의 대상이며, 우끄라이나는 이번 가스분쟁을 통해 점차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다. 국영기업인 ‘몰도바 가즈’가 몰도바 가스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러시아 ‘가즈쁘롬’은 ‘몰도바 가즈’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체결된 협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6년 4월 1일 직후 ‘가즈쁘롬’과 ‘몰도바 가즈’는 재계약 협상을 하였다. 이 협상 테이블에서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몰도바 가즈’의 지분 확대를 주장하였다. 즉, 러시아의 CIS 대한 에너지 정책 패턴은 국가별로 차별화된 수출가격 정책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패턴을 찾을 수 있다.

제2절. 미국 및 EU와의 에너지 협력 실태

1990년대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등 군비축소와 러시아의 시장개혁, 체첸과 관련된 인권문제, NATO 확대문제 등으로 대립관계를 보였으나, 2001년 9·11 사건 후 뿌찐 대통령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신속히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을 계기로 양국관계는 크게 호전되었다. 2002년 5월의 영수회담에서 양국은 '미·러시아 에너지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선언에서 구체적 협력방안으로 다음의 사항이 제시되었다.

- 에너지 시장 및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 도모
- 제3국에서의 개발을 포함한 양국 에너지 기업 간 협력 촉진
- 투자 확대를 통한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발전 및 현대화
- 러시아의 석유수출 추진(항만, 운송설비나 정유능력 현대화 포함)
- 대체 에너지 이용 등 화학 및 기술면에서의 협력 촉진
- 안전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원자력 발전기술 개발 협력

이 중 국제석유시장의 안정화와 대러시아 에너지 투자의 확대 및 러시아의 원유수출 촉진을 주요 주제로 하는 제1회 '미·러시아 상업 에너지 회담'이 2002년 10월에 개최되었다. 2002년 6월에 러시아 정부는 향후 3년 내에 8,000만 배럴 규모의 전략 석유비축을 마련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 국내의 긴급사용뿐만 아니라 국제유가의 안정화를 위한 이용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러시아가 국제석유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OPEC이 맡고 있는 국제 석유가격의 조정기능을 분산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2002년 5월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 원유를 직접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에는 대미수출의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해 유꼬스가 매월 200만 배럴의 시험용 원유를 수출하였다. 2002년 9월에 루꼬오일은 대미수출을 겨냥하여 연간 수출능력 3000만~5000만 톤 규모의 수출기지를 무르

만스끄항에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기지에는 대형 탱커(30만 톤 VLCC)의 선착이 가능하며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입된 러시아산 원유를 소형 탱커를 사용해 지중해로 운반된 후 VLCC로 환적 되는 것으로, 현재의 수출 루트에 비해 경제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무르만스끄항까지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수반하기 때문에 러시아 원유 파이프라인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국영 '뜨랜스네프찌'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북해지역으로의 수출비용을 낮추기 위한 제2의 프로젝트로서 두르지바 파이프라인의 남방 루트와, 크로아티아의 아드리아 파이프라인을 잇는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이 계획이 실현됨으로써 러시아는 35만 톤(250만 배럴)의 대형탱커가 접안할 수 있는 아드리아해 연안의 Omisalj 항으로 원유를 직접 수송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동시베리아의 앙가르스크 유전에서 극동, 태평양 연안의 나호뜨까항에 이르는 원유 파이프라인 계획도 미국 서해안 지역을 겨냥한 수출 루트로서 주목받고 있다. 즉, 미국에 대한 뿌찐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과 충돌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 양보를 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신뢰와 지원 하에 경제력 건설을 통한 대국 러시아의 재건을 꿈꾸기 위해 러시아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패턴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순응, 편승하면서 현실적인 국익, 특히 경제적인 이득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뿌찐은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테러를 포함한 국제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하며, 세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함으로써 국제관계 전반의 주도권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간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이해 및 지원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러시아와 미국은 서로 상호 의존하며 러시아의 막대한 에너지를 미국의 힘으로 세계의 에너지 정세에 영향을 주기 위한 협력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음으로 EU와의 협력 패턴을 알아보자. EU는 러시아 석유·가스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00년 러시아의 원유·천연가스 수출 중 유럽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8.1%, 59.2%에 달하였다. 또한, EU 국가들에게도 러시아는 중요한 에너지 공급처로서 2001년에 EU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원유량은 EU 전체 수입량의 22.1%를 차지하였다. EU 중 주요 수입국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경우 전체 원유수입 중 러시아 비중(2003년 1월)이 각각 40.5%, 26.5%, 13.5%를 차지하고 있다. 가스의 경우에도, 가즈쁘롬의 EU에 대한 EU 전체 가스수요량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 및 가즈쁘롬의 수출자회사인 Gazexport에서 발표한 2005년도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현황을 보면, 러시아 '05년도 천연가스 총생산량은 640.63bcm[58]이라고 밝혔다. 또한, Gazexport의 '05년도 천연가스 수출량은 04년도에 대비하여 9%증가한 154.06bcm으로 독일 35.97, 이태리 19.54, 터키 16.03, 프랑스 12.04, 오스트리아 6.23, 핀란드 4.00 등 총 100.36bcm을 서부유럽 10개국에 수출하였고, 헝가리 8.17, 체코 6.90, 슬로바키아 6.64, 폴란드 6.30, 루마니아 4.15, 불가리아 2.73 등 총 38.74bcm을 동부유럽 11개국에도 수출하였다. 이 밖에 인접국가로는 14.96bcm을 수출하였다.[59]유럽연합은 러시아 원유 및 천연가스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음에 따라 러시아와의 에너지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이를 위해 러시아의 WTO 비준과 에너지헌장 가입을 적극 지원하며, 양국 간 에너지협력 강화를 위한 자본, 기술, 제도 등과 관련한 협의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60] 이처럼 러시아와 EU는 에너지 수출시장과 에너지 공급처로서 서로 공생관계에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 에너지 교역 및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 국영 가스독점기업인 '가즈쁘롬'은 '시브네프찌'를 인수하여, 전력산업 분야의 지분확대 등과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하여 거대 통합에너지기업이 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가스수송루트 다양화와 LNG에 의한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하여 기존 PNG만이 유럽시장 공급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

58) 04년도 대비 1% 증가하였음. 총 생산량은 가즈쁘롬 547.25bcm, 최대독립생산자 Novatek 25.34bcm, 수직통합석유회사 48.9bcm, 기타 석유가스회사 18.64bcm 등으로 구성됨.
59) 주러시아대사관, 『러시아 가스포럼 2005 주요내용 요약집』, 서울, 외교통상부, 2005, p.2.
60) 주러시아대사관, 『러시아 Oil & Gas Week 회의 요약집』, 서울, 외교통상부, 2005, p.1.

려고 하는 바, 이러한 전략은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94년 6월에 조인되어 1997년 12월에 발효된 EU · 러시아 협력협정(EU-Russia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은 EU와 러시아간 정치적 협의 증진, 시장개혁 지원, 러시아의 WTO 가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의 취지는 EU 및 NATO를 통한 유럽통합의 확대가 러시아에게 위협이나 소외감을 주는 것을 피하고, 양자 간 우호관계를 증진시킨다는 데에 있다. 이 협정에서 에너지 부문도 중요 협력분야로 포함되었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정부 또는 실무자간 회의를 통해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은 2000년 10월 제 6차 EU-러시아 정상회담 시 '전략적 에너지협력'(Strategic Energy Partnership) 체결로 결실을 맺었다. 이 에너지협력협약 이후 EU와 러시아는 ① 에너지 전략과 수급균형, ②투자, ③기술이전과 에너지 인프라, ④에너지 효율과 환경이라는 4개의 상설 워크숍을 설치하여 에너지 부문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EU는 장기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고,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해 외국인 투자 보호를 위한 법 · 제도의 정비, 운송설비(파이프라인)에의 접근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1년 10월의 EU-러시아 정상회담에서는 단기적 과제로 러시아로부터의 장기 에너지공급 보장, 에너지 운송망 정비, 에너지 생산 및 운송 관련 법 · 제도 정비(PSA법등), 운송망의 안전 확보, 에너지 효율의 향상 등이 제시되었다. 2002년 11월의 정상회담에서는 이들 과제에 대한 진척상황이 평가되었는데, 양측은 천연가스 공급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고, EU는 러시아 의회에서 PSA법 등 관련 법제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다.이상과 같이 EU는 한편에서 주요 에너지 공급처인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외 1국가 당 가스 수입량의 제한[61] 이나 이란과의 관계 강화[62] 등 러시아에 대한 자원의

61) EU는 1998년 유럽가스지침에 의거 가맹국에 대하여 역외국 1개국당 가스수입량을 가스총수입량의 30% 이내로 제한한 바 있음.

62) 2002년 10월, EU와 이란은 무역투자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2001년 EU의 대 이란 에너지수입액은 약 55억 유로로, 이는 EU 에너지 수입액의 3.8%에 상당함.

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유럽공급가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영국, 독일 등에 지하저장시설 확보와 유럽 가스시장의 자유화에 대비하여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해외시장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공급 등 해외 영업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EU 에너지시장[63] 은 이미 성숙단계에 있는데다가 가스로의 연료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럽(특히 EU)은 앞으로 러시아의 석유 · 가스 생산 증가량을 흡수할 만큼의 수요확대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64] 도 있다. 또한 유럽과 러시아간에는 에너지 마찰문제도 있었다. 2005년 4월 18일 Miller 가즈쁘롬 사장이 유럽 downstream 시장진출을 EU 국가들이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에너지의 정치화를 경고한데 이어 뿌찐 대통령은 4월 26일부터 27일 동안 톰스크 러시아 · 독일 정부간 위원회 참석 계기에 '가즈쁘롬'의 강경한 입장을 옹호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공급선 변경가능성을 언급했다. 여기서 '가즈쁘롬'의 대유럽 압박 원인을 알아보면, 상기 에너지 공급선 변화와 실효성이 적고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국으로의 신뢰성 저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우선 '가즈쁘롬'이 upstream 부문에서 더 이상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성이 높은 유럽 에너지 소비시장의 유통과 판매 분야로 진출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EU의 유통업자들은 1 큐빅미터량 대략 $230에 러시아 가스를 수입해서 최종소비자에게 $500-$1,000로 판매하고 있다. 또 Miller '가즈쁘롬' 사장은 '가즈쁘롬'이 단순히 가스공급자가 아닌 통합되고 다변화된 에너지 생산자로서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러시아의 현재 원유수출 능력은 약 369만 b/d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

63) 유럽시장은 이미 수요 성숙기에 접어들어 향후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역내에 북해 유전이라는 공급원을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 및 중동의 원유도 다량 공급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시장임. 특히 까스피해 연안국들이 러시아의 최대 경쟁상대로 부각하고 있음.

64) IEA, *World Energy Outlook 2002.* 2002.에서는 EU의 석유 및 천연가스 장기수요(2000~30년)가 각각 연평균 0.4%, 2.1%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는 원유 수출량을 감안할 때 거의 한계[65] 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대 유럽 수출루트를 중심으로 수출능력 증강을 서두르고 있는데, 각 루트별 설비확장 및 신규 파이프라인 추진상황을 표<3-1>에서 정리하였다.

<표 3-2> 러시아의 원유수출 루트와 수출능력(2003년 3월)

단위 : 천 b/d

루트	수출터미널	수출능력	추가용량
야로슬라블(발트해)	쁘리모르스끄 항(러시아)	240	120
야로슬라블	벤츠필스 항(라트비아)	310	50
야로슬라블	부팅가 항(리투아니아)	160	124
페초라 지역	바랑디(러시아)	20	300
북방 루트(드루지바)	브레스뜨(벨로루시)	700	-
남방 루트(드루지바)	우즈고로드(우크라이나)	550	300
사마라	노보로시스끄 항(러시아)	840	-
까스피해 파이프라인 (텡기스)	오제레예브까 항(러시아)	350	440
사마라	뚜아프세 항(러시아)	160	-
사마라	오데사 항(우크라이나)	360	-
야로슬라블(계획 중)	무르만스끄 항(러시아)	-	
앙가르스끄(계획 중)	나호뜨까 항(러시아)	(84)	1,040
앙가르스끄(계획 중)	大 (중국)	-	
원유 파이프라인 계		**3,690**	

자료 : 최용권, 『러시아 석유・가스 개발현황과 전망 』,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04, p.58.

현재 러시아는 9개의 수출항(노보로시스끄, 벤츠필스, 투압세, 오데사, 부팅게 등)과 드루지바 파이프라인[66] (북방 루트 : 독일, 폴란드, 남방 루트 :

65) 기존 파이프라인의 운송능력은 한계에 달하고 있고, 수출 터미널 시설 등도 부족한 편으로, 이들 운송설비 부족이 향후 수출량 및 생산량 증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임.

66) 드루지바 파이프라인은 우랄・볼가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벨로루시를 경유, 벨로루시 내 모지르에서 분기하여 유럽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으로, 현재 이 파이프라인의 용량은 포화 상태로 수송능력 확대를 위해 아드리아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이는 우끄라이나와 슬로바끼아의 국경에서 파이프라인을 연장하여 크로아띠아의 Amisalj 터미널에 연결시킴으로써 아드리아海에서 유럽으로의 수출을 가능케 한다는 계획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을 통해 원유를 수출하고 있으나, 기존의 수출 선적항과 드루지바 파이프라인은 모두 거의 완전가동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향후 안정적인 대유럽 수출과 수출량 증가를 위한 원유수출 능력 확충이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원유수출 능력 보강을 위해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CPC(Caspian Pipeline Cosortium) 파이프라인[67] 과 발틱 파이프라인 시스템(Baltic Pipeline System)[68] 등 2개 파이프라인의 건설 및 운송능력 보강을 추진해 왔다.

한편, 천연가스 수출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구소련 시대부터 Bratstvo, Shebelinkf-Izmail, Northern Light, Soyuz, Urengoi, Progress 등 6개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유럽지역에 천연가스를 수출하여 왔다. 이들 모두 우끄라이나를 경유하여 유럽을 향하는 수출 루트로 러시아는 우끄라이나를 우회하는 루트 건설 및 가스 수출처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수출처 다변화의 일환으로 터키 앞 흑해 해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블루스트림)은 2002년 12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였는데, 당초 수출능력은 연간 20억㎥이었으나 2008년에 160㎥로 확충할 예정이다.

<표 3-3>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루트와 수출능력

단위 : 10억 ㎥/연

수 출 루 트		운송 능력	예정 용량
Bratstvo	끼예프→우쉬고로드(우끄라이나)		
Shebelinkf-Izmail	셰벨링카→이즈마일(우끄라이나)	7.3	

67) 까자흐스딴 텡기스와 러시아 흑해연안 도시 노보로시스끄를 잇는 파이프라인으로 1999년 2월에 러시아 정부가 CPC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승인하였고, 1999년 5월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2001년 3월에 완공되어 2001년 10월부터 가동 중임. 당초 수출능력은 연간 2,820만 톤이었으나, 2007년에 4,800만 톤, 최종적으로 2015년에는 연간 6,700만 톤으로 늘릴 예정임.

68) 러시아 코미공화국에서 상뜨 뻬쩨르부르그 근교의 끼리쉬를 잇는 기존 파이프라인을 발트해 연안도시 쁘리마르스끄까지 연장시켰음. 2000년 3월 건설이 시작되었고, 2001년 12월에 가동을 개시, 당초 수출능력은 1,200만 톤이었으나, 2003년 3월 러시아 정부는 이 파이프라인의 수출능력을 2005년 초까지 연간 4,200만 톤, 향후 5,000만 톤까지 증대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함.

Northern Light	우렌고이→우쉬고로드(우끄라이나)		
Soyuz	올렌부르그→우쉬고로드(우끄라이나)	24.5	
Urengoi	우렌고이→우쉬고로드(우끄라이나)	26.7	
Progress	암부르그→우쉬고로드(우끄라이나)	27.5	
블루 스트림 라인(해저)	이조비르노예→삼순(터키)	2.0	16
야말반도-유럽(계획 중)	야말 반도→프랑크푸르트(독일)		50
북유럽 라인(계획 중)	상뜨 뻬쩨르부르그→핀란드		

자료 : BP. *BP Static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5*. 2005.

한편, 계획 중인 프로젝트로서 우끄라이나를 우회하는 야말-유럽 파이프라인이 있다. 러시아 야말 반도에서 벨로루시 및 폴란드를 경유하여 독일을 잇는 총 길이 4,107㎞의 이 파이프라인(운송능력 연간520억 ㎥)은 2010년 완공될 예정이나, 막대한 개발비용(약250억~280억 달러)과 불확실한 유럽시장 판로확보 문제 등으로 답보상태에 있다. 그 밖에 가즈쁘롬과 핀란드 Neste Oy가 설립한 합작기업이 추진하는 북유럽 천연가스 파이프라인[69] 이 있다. 야말 파이프라인과 북유럽 파이프라인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유럽으로의 가스 운송능력 문제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이들 파이프라인의 건설 전망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이처럼 러시아와 유럽은 에너지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운송망 확충과 함께 양측 간 에너지협력 관계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5월 동유럽 10개국이 신규 가입함으로써 회원국 총 25개국이 참여하는 EU의 전력 · 가스 자유시장이 확대되었다. 러시아와 EU간에는 오래 전부터 가스의 공급 보장 및 수출대상 지역의 문제가 쟁점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러시아의 가스 산업 자유화에 대한 EU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러시아-우끄라이나 가스분쟁을 통해 EU는 높은 러시아 가스의존도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현재 EU로서는 러시아와의 경제 및 에너지 협력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면서 러시아의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기대하는 수밖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러시

69) 2001년 1월, 러시아의 상뜨 뻬쩨르부르그에서 핀란드 및 발트해 해저를 경유하여 독일에 이르는 루트가 결정됨, 총 길이 1,189㎞에, 2007년까지 연간 300억㎥를 운송할 계획으로 총 건설비용 57억 달러 중 일부를 EU가 지원할 가능성이 있음.

아 역시 경제전반 및 에너지수출에 있어 EU에 의존하고 있어 러시아와 EU는 상호의존성이 높은 관계라는 것이다. EU를 포함한 유럽은 전체 소비의 20%를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는 반면, 러시아는 가스수출의 80%를 EU를 포함한 유럽에 의존하고 있다, 가스의 경우 가스관을 통해 수출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와 수출 선의 변경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가스 수출의존을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러시아의 EU에 대한 의존도는 무역량과 무역구조에서 현저하게 드러난다. 2002년 러시아의 교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0%를 차지했으며,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추가로 가입한 이후에 이 비중은 50%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 EU의 관점에서 보면, EU의 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이후 3~5%, 수입은 2~3%의 비중에 불과하다. 또한 양 러시아와 EU의 경제권의 교역관계에서는 주요 선진국 사이에서 나타나는 산업내무역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EU에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을 수출하는 반면, EU로부터 생산재 및 소비재를 수입하고 있다. 제조업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대부분의 수입을 EU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표 3-4> 유럽 주요국별 가스수입의 러시아 의존도 (2004년)

국가	총수입(bcm)	러시아 수입(bcm)	러시아 가스수입 의존도(%)
오스트리아	7.80	6.00	76.92
불가리아	2.90	2.90	100.00
크로아티아	1.11	1.05	94.59
체코	9.80	7.18	73.27
핀란드	4.61	4.61	100.00
프랑스	37.05	11.50	31.04
독일	91.76	37.74	41.13
그리스	2.20	2.20	100.00
헝가리	10.95	9.32	85.11
이탈리아	61.40	21.00	34.20
라트비아	1.40	1.40	100.00

리투아니아	2.60	2.60	100.00
폴란드	9.10	7.90	86.81
루마니아	5.90	4.60	77.97
세르비아	1.76	1.76	100.00
슬로바끼아	7.30	7.30	100.00

자료 : BP. *BP Static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5*. 2005.

러시아는 2004년 유럽에 총 1,484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수출했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말한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20' 예상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러시아 에너지전략 2020에 따르면, 러시아는 2008~2010년까지 가스 총수출 245~275억 입방미터 중 유럽 수출을 약 200억 입방미터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 주요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와 수출시장의 확대가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2005년 5월 러시아와 EU는 공동구역[70] 창설 로드맵에 최종 합의하여 경제 뿐 아니라 정치와 안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이 중 최대의 이슈는 경제 및 에너지 협력이다. 북유럽 가스관의 건설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북유럽 가스관이 완공되면 CIS 국가들은 거치지 않고 직접 유럽으로의 가스공급이 가능해져 가스공급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현재 러시아의 유럽 내 최대 에너지협력 파트너는 북유럽 가스관을 공동으로 건설하고 있는 독일로서 향후 유럽 에너지시장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유럽 가스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러시아의 최우선 목표는 영국, 발트해 연안 국가, 남유럽 발칸 국가이다. 현재 러시아로부터 가스 수입이 전무한 영국은 향후 약 80~100억 입방미터의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북유럽 가스관을 영국까지 연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EU 가스수출전략은 상호 에너지 협력의 강화를 통해 수출입 규모를 극대화하며, CIS 국가에 대한 통제를 바

70) 2005년 5월 23일 러시아 뿌찐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방문중인 EU 대표단과 공동구역 창설에 관한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를 최종 합의하였음. 최종 합의된 러시아-EU 공동구역은 경제, 자유 · 역내안보· 사법, 대외안보, 연구 · 교육 · 문화의 4가지 분야이며, 이 중 경제부문 로드맵은 크게 역내교역 및 경제협력, 대외무역 및 관세협력, 통신· 운송 등 네트워크협력, 에너지협력, 우주개발협력, 환경보호협력 등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탕으로 유럽 수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출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러시아의 EU에 대한 에너지 정책은 EU를 이용하여 미국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패턴을 찾을 수 있었다. 러시아는 보다 공격적인 방법으로 미국과 EU 간의 관계를 교묘히 활용하기도 한다. 즉, 독일 · 프랑스 등 유럽의 각 국가와의 관계 확립을 통해 대유럽관계 뿐만 아니라 대미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이러한 러시아의 대 EU 외교의 최선의 수단으로 석유 · 가스 등 에너지원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원을 매개로한 러 · EU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 심화는 뿌찐에게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레버리지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EU와의 경제관계를 활용한 대미 견제의 수법은 뿌찐 외교의 질과 수준을 높힐 수 있으며 미국의 예상되는 반발도 완화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다시 냉랭해지기 시작하고 있는 미 · 러 관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뿌찐에게는 에너지를 통한 EU 국가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3절. 동북아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패턴

1.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 패턴

구소련 해체 후 1991년 12월 러시아와 중국이 국교를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까지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 ·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기지 입장을 확인하고 양국 간 '건설적인 파트너쉽 관계' 수립에 합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995년 이후 러시아의 대 아시아 정책은 중국 중시의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 배경으로는, ① 양국 모두 경제발전이 주요 과제였다는 점, ② 미국의 인권문제 해결 요구에 직면한 중국과 NATO 확대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사이에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주의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공통 인식이 생겼다는 점, ③ 1989년의 천안문 사건이후 서방으로부터의 무기수출, 군사원조가 중지되면서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이나 무기 수출이 확대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1996년의 러 · 중 정상회담에서 '실무협정'이 체결되면서 양국 간 경제관계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 안에 '에너지 협정'과 동시베리아에서의 대 중국 천연가스 공급과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1997년, 1998년 두 차례의 경제협력 회담에서 양국 총리는 기계생산이나 항공·우주 기술,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중국에서의 태양열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중국은 2002년에 이미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원유소비국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소비의 상당부분을 담당해 온 다칭 등 중국의 기존 대형유전은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어, 수요의 증가분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원유 도입선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그 실행방안으로 운송파이프 라인 및 석유가스전 개발에 러시아와의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의 유꼬스와 중국의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CNPC)이 공동 참여하는 앙가르스끄-다칭간 원유 파이프라인은 동시베리아 앙가르스끄에서 중국 북동부를 연결하는 총 2,488㎞의 원유수출 루트이다. 운송능력은 운영 초기에는 연간 2,000만톤으로, 2011년 이후 연간 3,00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2년 12월 중국의 주룽지 총리는 뿌찐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정부는 이미 이 원유 파이프라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2002년 9월 CNPC 산하의 다칭유전공사와 유꼬스, 로스데프찌가 동시베리아의 이르꾸츠끄 및 사하공화국의 석유·가스전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양국 간 추진 중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이르꾸츠끄-중국화동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똠스끄-준갈 분지 구간 파이프라인, 신장-상하이 구간 파이프라인 등 3개의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르꾸츠끄-중국 화동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이르꾸츠끄 근교의 꼬빅따 가스전으로부터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중국 연안부 및 한국 등에 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당초 중국과 러시아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1999년 5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을 계기로 2000년에 한국 가스공사가 참가하면서 3개국 사업[71]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파이프라인의 루트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이르꾸츠끄-심양-대련-서해해저-평택' 노선과 '이르꾸츠끄-심양-단동-북한-평택' 노선을 검토한 바 있으나, 최종 노선은 북한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 결정되었다. 최근 러시아 측 사업주체인 Russia Petroleum(RP)은 가즈쁘롬의 지분참여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러시아 정부로부터 가스수출권 확보와 관련 있는 RP와 가즈쁘롬간 지분참여 협상이 완료된 후 수출권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수출권자가 결정되면 3국 사업주체간 가격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똠스끄-준갈 분지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가즈쁘롬이 이미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투자 규모는 약 140억 달러 정

71) 각국별 사업추진 주체로는 한국은 한국가스공사, LG상사 등 9개사 컨소시엄, 중국은 CNPC(중국 국영석유회사), 러시아는 Russia Petroleum임. 향후 천연가스 도입물량은 30년간 중국 1,400만 톤/연, 한국 700만 톤/연으로 추정사업비는 약 176억 달러(가스전 64.5억 달러, 배관 111.5억 달러)에 달함.

도로, 연간 100억㎥ 정도의 가스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장-상하이 파이프라인은 가즈쁘롬이 Royal Dutch/Sell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하고 있고, 2002년 2월에 기본합의가 체결되었다. 즉, 중국과 러시아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이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확대하는데 합의하고 있으며 특히 시베리아를 포함한 러시아 동부지역의 자원개발을 통해 상호이익과 의존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을 공동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석유 등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이 최고로 중요한 현안이 됨에 따라 러시아 자원에 대한 관심은 자연히 높아지게 되었다. 이밖에도 중국의 기존 무기체계가 구소련제이기 때문에 자연히 중국의 러시아무기에 대한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 장비의 가격이 저렴하며 자금 결제방식[72]이 유리하기 때문에 매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이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첨단의 무기체계를 중국에 판매, 인도하려고 하는 국가가 러시아 외에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에너지 정책은 러시아가 유리한 입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역시 냉전 후의 러 · 일 경제협력은 북방영토 문제와 평화조약 체결이라는 큰 과제로 인해 그리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 러시아 · 중국 등 3개국은 서로 2국간 전략적 파트너쉽 관계를 발전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러 · 일 협력관계도 긴밀해지기 시작하였다. 1997년 11월 하시모토 · 옐찐 회담에서 러시아의 자원 잠재력이 주목받으면서 러 · 일 관계는 보다 강화되었다. 특히 2003년 1월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러시아 방문 시 일본 측은 앙가르스끄-나호뜨까 간 송유관 건설에 참여를 제안하는 등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양국 간 자원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개발 사업으로는 크게 사할린 프로젝트와 앙가르스끄-나호뜨까 간 원유파

72) 중국의 러시아제 무기 수입에 대한 자금 결제는 2/3가 바터제,1/3은 현금에 의해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프라인 개발사업 등 2개의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사할린 프로젝트는 사할린 동북부 오호츠끄 해상의 석유·가스를 개발하여 러시아 국내 및 동북아 국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6개의 주요 프로젝트가 있다. 이 중 사할린 1, 2 프로젝트는 탐사 및 생산 단계이며, 나머지 프로젝트는 탐사단계에 있다. 사할린1 프로젝트는[73] 미국의 엑손모빌과 일본의 사할린 석유가스개발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할린2 프로젝트[74] 는 RD/Shell 과 미쯔비시 상사, 미쯔이 물산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할린1은 1995년 6월, 사할린2는 1994년 6월에 러시아 정부와 PSA을 체결하였는데, 현자 PSA 제도 하에서 진척을 보이고 있는 몇 개 안되는 프로젝트이다. 사할린1 프로젝트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일본에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형태인 반면, 사할린2 프로젝트는 천연가스를 LNG 선박을 이용하여 수출하는 형태이다.

한편, 앙가르스끄-나호뜨까 원유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앙가르스끄-다칭 루트에 대한 대안으로 2002년 5월에 러시아 측이 제안했다. 뜨랜스네프찌는 과거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한 태평양 연안에의 원유공급을 구상하고 있었다. 동시베리아에서의 파이프라인 공급원으로 전망되는 유전들의 현재 매장량, 생산능력 및 생산비용을 감안할 때 앙가르스끄-다칭 루트와 서로 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본 측은 2003년 1월의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태평양 루트(나호뜨까 루트) 추진을 위한 자금협력[75]을 제안하는 등 적극성을 보여 왔다. 2003년 2월에는 2개의 루트를 통합하여 중간에서 분기하여 각각 다칭과 나호뜨까로 향하는 절충안도 나왔으나, 그동안 러시아 측의 최종 루트 결정이 연기되어 왔다. 2004년 하반기에 뿌찐 대통령의 방일을 전후하며 러시아 정부의 방침[76]이 확정되었으며, 일본 루트로 결정되었다. 즉, 뿌찐의

73) 사할린1 프로젝트의 매장량은 원유 3.1억 톤, 천연가스 3.4억 톤으로, 원유는 약 4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05년 생산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천연가스는 수요치 미확보로 상당기간 개발이 어려울 전망임.

74) 사할린2 프로젝트의 매장량은 원유 1.4억 톤, 가스 3.8억 톤으로 원유는 1999년부터 생산 중이며, 천연가스는 2007년부터 LNG 선박을 이용하여 수출될 계획임.

75) 일본 정부는 송유관 파이프라인 건설공사에 50억 달러, 동시베리아 유전개발에 약 70억 달러를 제공할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76) 최근 러시아 정부는 바이깔 호수 주변의 환경보호문제 등을 고려하여 2004년 2월. 뜨렌스네프

러시아는 결코 공개적으로 거론을 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민족주의 성향 강화, 군사력 현대화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급격한 국력 증대를 내심 경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의 인구 감소, 경제 낙후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중국의 대두는 더욱 위협적으로 비쳐지고 있다. 뿌찐은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일본과 협력해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협력은 전략적 수준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분야로 까지 파급, 확대될 수 있다. 뿌찐 정권내부에서 최근 에너지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대일관계 강화의 구상이 논의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풍부한 에너지 및 원자재를 훌륭한 외교수단으로 활용해 대중 및 대일 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 운영해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동시베리아 송유관을 둘러싼 일본 중시의 결정은 사실상 그 상징적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따라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뿌찐 정권의 동아시아의 관심은 이전의 중국으로부터 서서히 일본에로 이행되고 있다고 까지 평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최근 뿌찐 정권에서 보여 지는 중국 이탈 현상 및 경향은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찌가 제안한 이르꾸츠끄 '따이셋'에서 연해주의 '빼레보즈나야'로 루트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제4장. 한·러 에너지 협력 방안

제1절.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개발 정책 및 전략

한국은 대내외적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의 정부주도, 폐쇄형시스템의 에너지 정책에서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 시장주도형 에너지 산업 육성, 에너지 기술을 통한 해외시장개척, 대외개방형 에너지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정책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에서는 미래의 에너지수요를 적절히 예측하여 에너지 공급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 에너지 믹스 등을 포괄하는 에너지 수급 구조의 균형 및 안정화를 실현하는 것, 에너지 공급시장의 돌발적 불확실성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장주도형 에너지 산업 육성은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내 에너지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해외자본유치 및 국내 에너지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의 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하여 미래의 에너지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개발된 에너지기술을 수출전략분야로 집중 육성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외개방형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러시아, 중국 등의 동북아 국가와의 자원 · 에너지협력을 증진하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선의 다원화를 추구하여 에너지안보를 강화시킬 수 있다.[77]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에너지 · 자원 위기에도 사전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 및 안정적인 자원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해외자원 확보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면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는 등 자원개발에도 주력

77) 산업자원부, 『제 2차 국가에너지 가본계획 (2002-2011)』,서울, 산업자원부, 2002, p.2.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자원은 자주 개발률[78]이 5% 정도에 불과하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미래 자원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해외자원 개발 대상지로서 극동 · 시베리아 지역의 중요성은 당연한 것이다. 극동 · 시베리아 지역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막대한 자원이 부존되어 있어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해 있는 자원공급 가능 지역으로 수송거리 측면의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뿌찐 정부가 개혁정책과 국가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경협 증진을 통한 극동 · 시베리아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어 진출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원개발 분야 진출은 한국과 러시아간 경협 활성화에 도움이 됨은 물론 수교 16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일층 긴밀화시켜 나가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한국과 러시아간의 에너지 자원 협력 동향 및 전략적인 에너지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하여 본다.

<표 4-1> 해외자원 개발 기본 계획

구분	1차 기본계획(2001.12)	2차 기본계획(2004.12)
목표	- 자원 위기 시 충격 최소화 -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뒷받침	- 주요 에너지원 자립능력 제고 - 자원 확보 경쟁에 대응하는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중점 추진 과제	- 정부 지원체계의 기선 -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 - 융자제도 개선 - 추진체계의 효율화 - 정보 및 기술기반 확충 - 전문인력 양성 및 장비 극대화 - 동북아 자원협력체제 구축 - 자원보유국과의 협력강화	- 다양한 투자재원의 확충 -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원 확대 - 경쟁력 있는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 관련 공기업 역량 강화 -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강화 - 종합적 자원개발 지원체계 구축 - 해외자원개발 기술수준 제고

자료 : 국가정보원,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자원개발 진출 자료집』, 서울, 국가정보원, 2005. p.116.

78) 자주개발률이란 한 나라의 연간 자원 소비량 중에서 그 나라 기업의 해외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표 4-2> 주요 자원 자주 개발률(%)

구분	석유	가스	유연탄	철	우라늄	동	아연	희토류
2004년	4.1	4	26	5	0	7	38	4
2013년 (목표치)	15	30	35	20	10	20	40	10

자료 : 국가정보원,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자원개발 진출 자료집』, 서울, 국가정보원, 2005. p.38.

제 2절. 대 러시아 지역 에너지 자원 협력 계획

우리는 한·러 수교를 계기로 정상회담,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자원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한·러 자원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민간 기업들도 대러 진출을 도색해 오고 있다. 2000년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간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79]을 체결하였고, '가스협력협정'도 양측실무대표 간 논의 중에 있다.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진출이 늦은데다 체계적인 진출 전략이 미진하여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한·러 정상 회담 등을 계기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6년 10월에 러시아의 가스협력을 최종적으로 타결하였다.

<표 4-3> 국가 간 자원개발 분야 주요 협의 내용

구분		협 의 내 용
정상 회담	92.12	사하공화국·사할린 가스전 개발 공동 노력
	99.05	사할린-1, 이르꾸츠끄 가스전 개발사업 협력 '에너지협력협정' 체결 추진 합의
	01.02	이르꾸츠끄 가스전, 사할린 석유·가스전,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 참여 문제 계속 협의
	04.09	서깜차까·사할린 등 극동·동시베리아 유전탐사 및 사하공화국 엘가 유연탄 공동개발 합의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사업 한국 참여 긍정검토
	06.10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석유 및 가스전 개발 등 에너지 자원 협력 강화 추진
경제 공동위	01.02 (3차)	한·중·러 간 이르꾸츠끄 가스전 사업의 본 타당성 조사 성공을 위해 긴밀 협력 러 측은 한국기업의 사할린 석유·가스전 개발 및 극동·동시베

79)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주용 내용은 1.탐사, 채굴, 개발, 가공처리, 수송을 위한 공동연구 및 합작 실시 2.에너지 교역 증진을 위한 협력 3.에너지 관력 정책, 에너지산업 현황·전망 등 정보 교환 등임.

		리아 지역 자원개발 참여를 제의
	03.07 (5차)	이르꾸츠끄 가스전개발 타당성 조사사업 조기완료 동시베리아 및 극동 러시아 자원개발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등 양국 간 협력 필요성 확인
자원 협력위	99.04 (3차)	사할린-1 및 이르꾸츠끄 가스전 개발 협력 깜차까 및 끄라스노야르스끄 유전 개발에 따른 한국산 설비 도입 러시아 및 제3국에서의 석유·가스 공동 개발
	01.04 (4차)	이르쿠츠크 가스전 타당성조사를 02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가스배광망의 북한통과 가능성도 검토 러 측은 사할린-1·2 분 참여 및 사할린 4·5·6 입찰참여를 제의
	02.12 (5차)	러 측은 사할린 프로젝트 입찰참여 및 사할린-2 천연 가스 구매 요청
	05.07 (6차)	서깜차까 환경 영향평가시 우호적 협조를 통한 원할한 사업 추진 우리 기업 송유관 건설 참여를 위해 지속 협의 가스협력협정 체결
	06.10 (7차)	가스협력협정 최종 타결 사할린-3 프로젝트에 한국기업 참여하도록 적극 협조

자료 : 국가정보원,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자원개발 진출 자료집』, 서울, 국가정보원, 2005. p.106 및 건설일보, 2006년 10월 19일자, *러시아의 가스협력협상* 참조.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의 석유·가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을 살펴보면 사할린 유젼·가스전 개발, 이르꾸츠끄 가스전 개발,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깜차까 유전 개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사할린 유전·가스전 개발을 살펴보면 수교직전인 1990년 6월 삼성·팜코가 사할린 유전·가스전 개발참여를 최초 타진한 이래 사할린-1·2 광구 참여를 추진했으나 무산되었다. 현대가 사할린 해상 유전·가스전에 대한 타당성조사권 국제입찰(92.1)에 참여하여 미·일 컨소시엄에 낙찰되었다. 고합·LG·대우 등 4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할린-1 프로젝트에 지분참여를 추진하였으나 일본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러시아 측은 90년대 말 이래 우리의 지분 인수·입찰 참여를 계속 권유하였다. 1999년 4월 제 3

차 한・러 자원협력위시 사할린-1 프로젝트에 대한 '로스네프찌' 지분 중 일부 구매를 제의하였고, 2001년 4월 4차 자원협력위시 사할린-1・2 광구 지분 참여 및 사할린 4·5·6광구 입찰 참여를 제안하였다. 또한 2002년 12월 5차 자원협력위 시에도 사할린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다.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한국석유공사와 '로스네프찌'간 사할린 지역 등 유망광구 공동개발을 위한 'MOU 체결'에 따라 양측 간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상 회담 시 공동 참여를 검토키로 했던 베닌스끼 광구[80]는 기술평가 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로스네프찌'에 불참을 통보하였다. 석유공사는 베닌스끼 광구 대신 끼린스끼 광구 입찰을 위해 러시아 TISE(투자자문사), '자루베즈네프찌'(국영 석유사)와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 중이다.[81] 한편 우리는 사할린 광구 개발에 참여하는 외에 원유・천연 가스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사할리-2광구에서 1999년에 상업적 원유생산이 시작된 이래 LG, SK 등 국내 정유사들이 이 지역산 원유를 도입 중이며, 2005년 7월 한국가스공사는 '사할린에너지'사와 사할린-2에서 생산되는 LNG를 20년간 공급받기로 하는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82]

두 번째, 이르꾸츠끄 가스전에 관한 개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르꾸츠끄시 북방 약 450km 지점의 꼬빅따 가스전을 개발, 파이프라인을 통해 한국 및 중국에 공급하는 사업이다.[83] 현재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1999년 5월 김대중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한・중・러산 공동추진에 합의하였고, 2003년 1월 러시아 측은 30년간 매년 약 2,100만톤[84] 규모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였다. 한・중・러간 이르꾸츠끄 가스전 사업 타당성 조사는 이미

---

80) 2005년 7월 이곳 광구는 중국 SINOPEC가 '로스네프찌 '와 공동 개발키로 합의 함.

81) 2005년 2월 TISEDHK 사할린-3 신규광구 참여,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추진 및 석유제품 교역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MOU'를 체결하고, 2005년 7월 공공 입찰 문제를 협의할 실무그룹 구성 및 현지법인 설립에 합의함.

82) 2008년 4월~20027년 3월 (5년 연장 옵션) 간 연간 150만톤 도입, 계약금액 : 년간 3억불(총 60억불)

83) 국가별 사업 추진 주체는 한국 컨소시엄 (가스공사, LG 등 9사), 중국 석유가스 공사 (PNPC), 러시아 RP(Rusia Petroleum)임.

84) 중국은 1,400만 톤, 한국은 700만톤을 보장함.

2003년 11월에 완료 되었다. 그에 관한 타당성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4> 타당성 조사 결과

구분	조 사 결 과
매장량	약 10억톤
한국 도입 예상 물량	년 700만톤씩 30년간 도입 중국 도입물량 연 1,400만톤, 러 내수용 연 700만톤
배관거리	약 4.238km(해저노선 기준, 중국내 지선 제외)
추정사업비	약 176억불(한국 측 부담 약 40억불 예상, 향후 20~30%사업비 감소 예상)
개발계획	1단계(2008~11년) 280만톤 2단계(2012~15년) 1,750만톤 3단계(2016~36년) 2,800만톤 생산

자료 : 국가정보원,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자원개발 진출 자료집』, 서울, 국가정보원, 2005. p.109.

또한 최근, 2006년 10월 17일에 러시아와의 가스협력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시 합의 이후, 2년여에 걸쳐 진행되었던 한국과 러시아 가스협력 협상이 최종 마무리 됐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은 러시아와 가스전 개발 및 도입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양국 간 가스전 개발 및 가스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스 자주개발을 향상, 안정적 가스수급과 도입선 다변화, 동시베리아 지역 가스전 개발의 교두보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협정체결에 따라 양국의 국영가스회사인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쁘롬은 구체적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스 산업 협력 합의 의정서도 체결했다. 일차적으로 양사는 상업적 가스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하게 되며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신규로 오는 2007년에 장기 도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85)]

세 번째,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사업은 원래 중·러 및 일·러 간에 논의되어 왔으나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계기로 우리 측이 참여의사를 전달한데 대해 러시아 측이 이를 긍정하여 수용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사업 참여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2004년 10월 산자부·한국석유공사 및 금융·건설·강관 분야 등의 사가 송유관 사업 참여를 위한 '조사협의회'[86]를 구성하고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송유관 입찰 지원을 위한 러시아 관련법규 발췌, 법률 자문 및 입찰전략 수립 조언을 목적으로 석유공사 주관으로 러시아 법률 자문회사 '도브로빈스끼'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SK는 종착지인 연해주 뻬레보즈나야 만에 정유공장, LG상사는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는 문제를 연해주 측과 협의하여 2005년 5월 '다르끼' 연해주지사가 한국을 방문 했을 때 LG상사와 석유화학 콤플렉스 건설 프로젝트 관련 협력의정서를 체결하였다. 러시아 측은 2005년 6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05년 중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환경 및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지연되었다.

네 번째, 우리의 깜차까 지역 에너지자원 개발 진출은 지난 2004년 9월 한국석유공사와 '로스네프찌'간 서깜차까 광구 공동개발 합의에 따라 시작되었다. 우리 측의 사업 추진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석유공사가 2004년 10월부터 이 지역에 대한 기술평가 작업을 수행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1차 확인한 후 '로스네프찌'와 본격적인 개발협상에 착수하였다. 석유공사와 '로스네프찌'간에 2005년 2월에 총 1,060만불을 서깜차까 해상광구 탐사작업에 투입키로 하는 재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내 7개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87]하였고 2005년 6월 환경조사 후 2005년 8월부터 탐사가 진행되었으며, 자문사(White & Case) 2005년 중 본 계약 체결 및 합작회사(한국 측 지분 40%)를

85) *건설일보*, 2006년 10월 19일자, "러시아와 가스협력 협상 참고."
86) 조사협의회 조사단이 현지 업체를 방문했으며, 석유공사는 기업과의 정보 공유를 위해 협의회 회보 'Pacific Oil Pipeline Newsletter'를 매주 발행함.
87) 참여지분 : 석유공사 50%, 가스공사·SK·GS칼텍스·대우인터네셔널 각 10%, 현대종합상사·금호석유화학 각 5%

추진하였다.

가스부문에 있어서 러시아 측은 독일, 터키 등 서유럽국가와만 가스협정을 맺어 왔으나 동북아 국가 중에는 최초로 우리나라와 체결하였다. 러시아가 우리나라와의 협정 체결을 가장 먼저 추진한 이유는 국내의 발전된 가스인프라와 가스시장 진출을 위한 것으로써 동북아 신흥시장 개척 및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88] 이처럼 가스부문에 있어서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지만 아직까지 석유에 대한 협력 사항은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에너지 분문에서 러시아와 가장 합리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이상적인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88) *건설일보*, 2006년 10월 19일자, "러시아와 가스협력 협상."

제 3절. 이상적인 협력 방안

첫 번째로 문화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다른 민족국가와 협력관계를 갖는데 있어서 서방사고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석유와 가스의 공급 방법에 있어서도 자국의 이해타산과 맞지 않을 시 정상적인 국제가격에 거래가 되지만, 친러시아 정책을 구사하는 나라에는 낮은 공급가를 제시하는 수출 이중가격을 채택해왔다. 이러한 예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러시아는 보통의 서방사고와는 다른, 법과 제도를 초월하여 관계를 맺는 문화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한다.

두 번째로 국가 에너지 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에너지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때, 해외에너지 자원 확보를 국가안보·외교 정책의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범정부차원의 종합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해외에너지 자원 확보 문제를 특정 부처가 담당하는 에너지 수급대책이라는 인식을 타파하고,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여 금년 9월 발효되는 '에너지 기본법'에 의해 구성되는 국가 에너지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서 해외에너지 확보와 안정적인 수송체계 구축에 역점을 둔 '국가 에너지 안보 전략' 및 그 행동계획이 수립되도록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전략지역에 대한 자원외교를 단순한 협력이 아닌 포괄적 외교정책의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외에너지 자원 개발 여건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 우리 민간 기업에게 주재국 관련자에 대한 인적 데이터베이스 또는 진출 성공사례 등을 제공함으로써 민관합동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극동·시베리아지역 에너지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에너지 자원 협력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선 러시아 내부적으로 인프라

및 투자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자원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이 변화하는 등 제반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대러시아 진출 역사가 일천하고 극동·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정보는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양자 외교적 측면에서도 정상급이 빈번하게 교류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감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분야에서도 대규모 경제지원을 내세우는 일본이나 물량공세를 펴는 중국에 비하면 경쟁력이 열세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지역은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해 있는 자원 공급 가능지역으로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동 지역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막대한 자원이 부존되어 있어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 안보 공고화와 에너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진출해야 할 것이다. 한·러 에너지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이미 확인되었으며, 러시아 측도 극동·시베리아지역 개발을 통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 및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또한 동 지역 개발에 따라 연해주 남부 해안지역에 대규모 석유가스 정제공장, 화학공장, 터미널 등 항만 물류시설의 종합적 건설프로젝트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에너지 협력을 통한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모색하는 것이다. 동북아 역내 국가와의 에너지협력 증진을 통해 북방 에너지자원개발의 외연을 확장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선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의 에너지 공급선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안보 역량을 개선해야한다. 이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의 개선과 대외개방형 시스템을 갖춘 아시아의 에너지산업 중심국가로의 부상이라는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은 에너지 대소비국인 반면 러시아는 대규모 에너지 부존지역이어서 지역내 국가 간 상호보완적인 에너지 수급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수급 특성은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제적 동인을 제공하며, 공동 이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환경이 되고 있다. 시장 논리로 볼 때,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분명히 매력적이고 추진되어야할 사안이며 안보상의 시각에서도 갈등과 충돌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북아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장기간에 걸친 투자 및 운영이 필요한데, 일단 성사가 되면 갈등의 감소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북한의 부적절한 정치 행위(핵·미사일 위협 등) 및 중국과 일본의 지나친 경쟁구도에 따르는 협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참여국들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동 지역에서의 에너지협력체 결성이 필요하다. 다만 동 협력체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한· 미동맹 및 미· 일동맹 정책에 변화를 요구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개방적 협의체 형태로 동북아 에너지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면, 에너지 협력이라는 경제논리를 통해서 지역 내 정치적 갈등구조를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북한을 포함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우선 코러스(KoRus)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활성화 시킨다. 이 프로젝트는 사할린의 천연가스를 러시아 극동과 북한을 통과해 한국으로 끌어오면서 가스관 통과 대가로 북한에 가스를 제공해서 발전용으로 쓰게 한다는 구상이다. 북한이 더 이상 에너지 개발을 명분으로 한 핵 개발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점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도 진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 내 가스배관망의 미비 등 인프라 낙후, 전문 인력 부족 등의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재원 조달방안, 북핵 문제 등으로 동 계획의 실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 5장. 결론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원국과 외교관계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다. 한국은 중동지역 에너지의 의존도가 80%에 육박하고 있어 중동 에너지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외교적 접근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결코 앞서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러시아도 현재 유럽지역에 편중된 석유와 가스의 수출지역을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개발과 수출확대를 위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와 러시아간 에너지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여건이 성숙되어 있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러시아 에너지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때, 우리는 한국의 에너지 현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러시아와의 에너지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인식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에게 알맞은 협력방안을 찾기 위해 우선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았다. 뿌찐 정부의 신에너지 경제 정책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고, 에너지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석유가스 부문에 편중된 경제구조 극복을 위하여 현재의 양호한 고유가 시황을 바탕으로 한 석유기업들의 초과 이익을 회수하는 한편, 타 제조업 부문의 세율을 인하하여 기타부문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에너지 정책에 맞추어 2003년에 최종 발표된 새로운 에너지 전략인 '에너지 전략 2020'의 주요 내용은 러시아 전체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러시아의 대동북아 에너지 전략의 변화이다. 러시아는 이제까지 석유 및 가스의 주 산지였던 서시베리아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동시베리아 및 극

동지역의 석유 및 가스개발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한편 동북아의 한국 · 중국 · 일본을 새로운 러시아 에너지자원 수요의 중심 국가로 상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에너지 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석유시장의 30%, 가스시장의 15%를 러시아가 점유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의미심장한 점은 가스의 경우 시장이 결정해야 할 가격까지 국가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전략 2020' 에서 가스부문 핵심정책은 단일 가스공급 시스템의 구축(UGSS)이다. 이는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20의 로드맵 하에 러시아 전역의 국내용 및 수출용 가스관을 단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국가가 관리 및 통제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고 동북아 국가들의 러시아 가스의존도가 높아진다면, 러시아-우끄라이나 가스분쟁을 통해 드러났듯이 러시아의 에너지 통제가 동북아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2005년 10월 14일 러시아 가즈쁘롬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담당하며 정부를 대신하여 교섭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현재 CIS와 EU가 직면하고 있는 러시아 가스수출전략이 동북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셈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 확보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통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후에 러시아의 대외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서, 각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 패턴을 알아보았다. 러시아의 CIS에 대한 에너지 정책 패턴은 국가별로 차별화된 수출가격 정책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패턴을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러시아-우끄라이나 가스분쟁은 러시아에 있어 가스라는 중요 에너지자원을 통해 CIS와 EU에서의 영향력과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야심과 최대 가스수출시장인 EU로의 안정적 수출과 수출시장 확대라는 경제적 야심이 결합되어 나타난 일련의 사건이다. 러시아-우끄라이나 가스분쟁과 러시아의 대 CIS 및 EU 가스수출전략을 살펴봄으로써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이 새로운 형태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으며, 러시아 가스 수입국들의 에너지 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CIS와 EU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은 CIS와 EU국가들에 비해 현재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자원의 러시아 의존도가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를 위해 공급원의 다각화를 추구해야 하는 동북아 국가들의 입장에서 러시아 에너지자원의 확보는 필수적이어서 향후 러시아의 전략에 따라 오히려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어 미국에 대한 뿌찐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과 충돌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 양보를 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신뢰와 지원 하에 경제력 건설을 통한 대국 러시아의 재건을 꿈꾸기 위해 러시아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패턴을 찾을 수 있었으며, 러시아와 미국은 서로 상호 의존하며 러시아의 막대한 에너지를 미국의 힘으로 세계의 에너지 정세에 영향을 주기 위한 협력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럽에 대한 에너지 정책은 유럽을 이용하여 미국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패턴을 찾을 수 있었다. 러시아는 독일 · 프랑스 등 유럽의 각 국가와의 관계 확립을 통해 대유럽관계 뿐만 아니라 대미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러시아의 대 유럽 외교의 최선의 수단으로 석유 · 가스 등 에너지원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원을 매개로 한 러 · 유럽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 심화는 뿌찐에게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레버리지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뿌찐의 러시아는 결코 공개적으로 거론을 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민족주의 성향 강화, 군사력 현대화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급격한 국력 증대를 내심 경계, 우려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의 인구 감소, 경제 낙후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중국의 대두는 더욱 위협적으로 비쳐지고 있다. 뿌찐은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일본과 협력해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협력은 전략적 수준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분야로 까지 파급, 확대 되었다. 이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풍부한 에너지 및 원자재를 훌

륭한 외교수단으로 활용해 대중 및 대일 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 운영해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그동안 러시아와 한·러 경제공동위원회, 한·러 자원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극동지역 및 동시베리아에서의 에너지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는 등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사업 및 사할린 프로젝트에도 참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은 에너지안보를 위한 정책면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세 국가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한 안보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측면에서의 안정성 추구는 모두의 공통된 사안인 것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은 중동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공급원의 다원화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원유송유관 종착지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오랫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앙가르스끄-나호뜨까노선이 확정되었다는 점은 공급의 다원화를 위한 치열한 외교전을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비상시를 대비한 전략적 비축석유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전략적 비축석유 확보에 소극적이었던 중국마저도 경제성장에 따른 석유의존도가 심해지자 비축석유확보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들 국가들은 해외의 석유 및 천연가스의 개발협력을 오래전부터 추진 중에 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과의 송유관 협력을 체결하는 등 자국 내의 자원개발 뿐 아니라 해외의 개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이 세 국가는 에너지안보를 향한 적극성에서는 차이가 보인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외교적 긴밀도를 감안할 때,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이란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에너지관련 부분에서의 협력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 또한 중동 뿐 아니라 여러 국가들과의 자원협력에 노력하고 있으며, 자국 주변 영토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주변국가와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자국영토주장과 해저시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은 다른 대체수송로에 적극적이

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아직 소극적인 단계에서의 에너지 안보에 머물러 있다고 보겠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한국의 에너지안보에 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즉, 그동안 극동 및 동시베리아의 원유 및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30여년전부터 중장기적으로 다각적인 참여 방안을 모색해 온 일본이나 실질적인 참여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 중국 등에 비한다면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통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은 바로 러시아와 EU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CIS국가들과는 달리 EU는 러시아와 상호 경제의존관계에 있다. EU는 러시아 가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비교우위에 입각한 무역확대를 통한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 강화 및 지속적인 경제협력 노력을 통해 러시아의 가스수출전략에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체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통제를 견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북아 국가들도 러시아와 에너지뿐만 아니라 무역 및 투자 등 다양한 부문의 경제교류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를 강화하여 자체 견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EU는 러시아와의 에너지 관계에 있어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EU 차원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협상력이 배가되고 있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경제통합이 러시아 동북아 에너지 전략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중요한 논거가 되고 있다.[89] 따라서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문화적 연계를 강화하여,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민간 기업에게 주재국 관련자에 대한 인적 데이터베이스 또는 진출 성공 사례 등을 제공함으로써 민관합동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 정부의 중장기적인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전략, 자원개발관련 투자환경 변화, 러시아 전체 에

89) 신현준,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수출전략,” 『월간끼예프 세계경제』, 제2월호,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6, 참고.

너지 자원의 장기 개발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동북아 에너지 협력 로드맵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A. T. Kearney. "Measuring Globalization: Economic Reversals. Forward Momentum." *Foreign Policy,* March-April, 2004.

BP.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4,* 2004.

BP.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5,* 2005.

Cutler, Robert. *Russia and Europe's Energy Strategy*. Alexander's Gas and Oil Collections News & Trends: Europe, 2000.

International Energy Agency. *World Energy Outlook 2002,* 2002.

Ivanov, I .Vladimir. *Russian Energy Strategy 2020: Balancing Europe with the Asian Pacific Region,* Moscow, 2003.

Kegley,Chafles W. & Wittkopf. Eugene R. (ed.). *World Politics*: *Trend and Transformation.* Macmillan Press LTD, 2001.

US Energy Association. "Toward a National Energy Strategy". *United states Energy Association 2001,* 2001.

Госкомстат РФ.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04.* Москва: Госкомстат РФ, 2005.

Госкомстат РФ.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05*. Москва: Госкомстат РФ, 2006.

ИЭПП. *Российская экономика в 2005 году*. Тенденции и перспективы (Выпуск 27). Москва:ИЭПП, 2005.

Стратегия разработки газо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России. Энергоатом, 1997.

ЯП. *Каловицки.основные проблемы развития морской нефтегазовой подотрасли в России*. Газпром, 2004.

강봉구, 한구현. “자원전쟁 시대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 동시베리아 · 극동지역을 향하여.”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3호, 2004년 (가을) 통권 46호, 2004.
국가정보원. 『러시아 극동 · 시베리아 자원개발 진출 자료집』, 국가정보원. 2005.
김대형. “시베리아의 천연가스 자원과 러시아의 동북아지역 천연가스 수출 전략.” 『한국시베리아 학보』, 제2집, 서울. 한국시베리아학회, 2000.
김덕주.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개발 동향과 우리의 대응 : 극동 시베리아지역을 중심으로.” 『2006 봄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보안보연구소, 2006.
김선영. “러시아 지하자원법 개정 이후 투자 감소 우려.”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5.
김수희. 『세계화와 우리의 진로』, 광주,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6.
박현주. 『동북아 에너지 안보에 관한 지정학적 연구-에너지 수급과 수송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5.
산업자원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2-2011)』, 2002.
신현준.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과 러시아 가스수출 전략”. 『월간끼예프 세계경제』, 제2월호,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년 2월,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04』, 서울, 에너지경제연구소, 2004.
주러시아대사관. 『2005년도 러시아 가스포럼 2005』,서울, 외교통상부, 2005.
주러시아대사관. 『2005년도 러시아 경제동향』, 서울, 외교통상부, 2005.
주러시아대사관. 『러시아 Oil& Gas Week 회의 요약집』, 서울, 외교통상부, 2005.
최용권. 『러시아 석유 · 가스 개발현황과 전망』,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04.
최원보. “러시아 석유 및 가스 산업의 현황과 전망.” 『월간 카프가즈 저널』. 제6호, 서울, 한국 외국어 대학 외국학 종합 연구 센터 러시아 연구소,

2004.
홍성원. “러시아 석유산업의 구조 변화와 푸틴 정부의 석유 정책.” 『슬라브학보』, 제20권 2호, 서울, 슬라브학회, 2005.
Oil&Gas Eurasia(www.eurasiapress.com).
국제에너지기구(www.iea.org).
동방지역에너지조사기구(www.easternblocenergy.com).
러시아 가즈쁘롬 북유럽 가스관 공식 홈페이지 (www.negp.info).
미국 에너지 협회(www.usea.org)
산업자원부(www.mocie.go.kr).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
에너지경제연구원(www.keei.re.kr).
외교통상부(www.mofat.go.kr).
일간석유가스(http://eoilgas.co.kr)
통계청(www.nso.go.kr).
한국가스공사(www.kogas.or.kr).
한국석유공사(www.knoc.co.kr).
http://blog.naver.com/kimseye3?Redirect=Log&logNo=130010840442.
2006년 11월 9일. "80-90년대 가스 도입시 가격 전망 못한 정책실패로 비싼 대가 치러."
BBC News. 2006년 1월 2일자. *Ukraine Stealing Europe's Gas.*
건설일보. 2006년 10월 19일자. "러시아와 가스협력 협상."
세계일보. 2006년 10월 24일자. "석유 민족주의 확산...공룡기업 흔들."